

#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李 昊 俊\*\*

1. 머 리 말
2. 경상도 지방군의 동원과 초기 전투
3. 조정의 초동조치와 경장(京將) 부대의 전투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임진왜란은 한국의 군사사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으나<sup>1)</sup> 당시 조정의 전쟁준비, 전쟁지도 및 군사력 운용에 대한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임진왜란시 조선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은 16세기 조선의 군사체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임진왜란 전 기간의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한성 점령과 대규모 전쟁의 후유증에만 주목한 나머지 임진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보완한 글임.

\*\* 육군 대위

1) 오종록,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2001~2004-", 『군사』 53(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332~335.

왜란 당시 조선의 군사체제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웠다.<sup>2)</sup>

기존 임진왜란 연구의 지배적 시각에 의하면 조선은 전쟁을 모르는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대규모 일본군의 공격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군비가 해이해졌다고 하였다.<sup>3)</sup> 이러한 인식은 임진왜란 당시뿐만 아니라 16세기 조선의 군사체제 전체를 왜곡하여 보는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조선의 군사체제 작동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군사제도의 제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 개별연구에 그쳤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군사제도 연구는 이미 학계의 정론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새로운 연구시도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1960~70년대의 연구에 의해 16세기 군역제 변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전기 국방체제인 진관체제가 변화되었으며<sup>4)</sup> 을묘왜변(乙卯倭變) 이후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분군법(分軍法)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5)</sup> 또한 제승방략은 진관체제의 대강을 기반으로 변형된 것임이 고찰되었다.<sup>6)</sup> 이러한 연구 성과로 인하여 16세기 조선의 사회·국방 변화상이 충분히 고찰되었지만 군사체제의 변화상을 군비 해이와 연계하여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은 종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었다. 조선 후기 조선과 일본에 널리 전파된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시

2)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5(서울: 경인문화사, 2005), pp. 39~41.; 심승구,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원체제의 재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5(서울: 경인문화사, 2005), p. 184.

3)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5(서울: 경인문화사, 2005), pp. 9~11.

4) 육군본부, “군역의 변질과 납포제 실상”,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서울: 육군본부, 1968)

5) 육군본부, “중앙 및 지방 군제의 변화”,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서울: 육군본부, 1968)

6) 허선도, “제승방략 연구(상·하)”, 『진단학보』 36·37(진단학회, 1973·1974)

자신의 공적은 감추되 실패한 것을 드러내어 훗날의 교훈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sup>7)</sup> 이에 따라서 조선의 초기 대응 양상이 비판적으로 서술되었다.<sup>8)</sup> 이와 더불어 전후 복구과정에서의 시대별 공신선정과 전쟁평가에 의해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변화되었다.<sup>9)</sup> 광복 이전 일본인 연구자들의 성과는 주로 일본군의 군사적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전쟁 초기에 일본군은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조선군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의병 연구를 통해 상당히 극복되고 이제는 임진왜란을 승리의 전쟁으로 판단하는 단계에 이르렀다.<sup>10)</sup>

최근에 이르러 점차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임진왜란에서 관군의 기여도를 초기 전투보다 1593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sup>11)</sup> 그러나 임진왜란 초기 전투부터 조선의 동원체제가 유지되었으며, 관군의 전투력이 상당했음을 주장하는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임진왜란 극복의 주체를 의병으로 보았던 기존 인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며 새로운 연구시각을 제시하였다.<sup>12)</sup>

본고는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군사체제

7)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남명학연구』 7(경남: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7), p. 3.;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한국군사사논문선집: 왜란·호란편』 5(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p. 38~39.

8)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화가산현립박물관 소장 「임진왜란도병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서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p. 171.

9)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 현실』 51(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07), pp. 11~12.

10) 노영구, “최근의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경향과 과제”, 『교수논총』 44(서울: 국방대학교, 2007), pp. 52~53.

11) 오종록,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2001~2004-”, 『군사』 53(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p. 353.

12)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화가산현립박물관 소장 「임진왜란도병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서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의 문란함과 부족한 전쟁대비로 전쟁 초기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의 연구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전쟁은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쟁사의 고찰은 당시 조선의 군사체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사료에 의존하는 기존의 전쟁사를 군사적 관점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군사체제를 연구하였다.

16세기 조선의 군사체제는 경장 파견의 기능이 발전된 결과 진관체제의 분군법이 제승방략의 분군법으로 변화되었다. 16세기를 거치며 조방장부터 도체찰사에 이르기까지 경장 파견의 기능은 점차 발전되었고, 이 결과 경장은 파견시 금군(禁軍)의 일부와 한성에 있는 무장으로 편성된 중앙군의 정예병을 대동하고 해당 도(道)로 이동하며 부대를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역로망(驛路網)을 경유하고 제진별 운법(運法)에 의해 각 집결지에 대기 중인 군사, 군마, 군량, 전투물자를 취하며 이동했다. 각 도의 분군법(分軍法)은 경장 파견과 더불어 변화하는 국방상황에 의거하여 도(道)별 제승방략에 반영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은 구축된 군사체제를 통하여 군사력을 운용하였다. 봉수망과 역로망, 관보 등 각 통신체계에 의해 신속한 정보전파와 함께 군사동원이 시작되었다. 병사(兵使), 수사(水使)가 제승방략(制勝方略)에 의하여 동원된 각 제진(諸鎭)의 군사를 운용하여 적변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하였다. 도의 감사(監司) 겸 순찰사(巡察使)는 상황을 판단하여 도내의 분군령(分軍令)을 하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경상도 중(中), 북(北)부 각 제진의 군사들은 분군법(分軍法)에 의해 지정된 집결지로 이동하였다. 일부 제진은 초기 대응중인 지방군 지휘관의 부대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제진은 경장(京將) 부대로 편성되었다. 조정의 초동조치에 의해 조방장부터 도체찰사까지 경장은 순차적으로 파견되었다.

## 2. 경상도 지방군의 동원과 초기 전투

### (1) 경상좌도 초기 전투와 동원과정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는 지형적 특성과 전쟁을 대비한 수군기지의 위치조정으로 인하여 수군의 진포(鎭浦)가 밀집되어 있었다. 경상좌도는 경상우도, 전라도와 비교할 때 섬이 거의 없고 복잡하지 않은 선형의 해안구조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왜구의 위협은 매우 낮았다.<sup>13)</sup> 경상좌도는 경상좌수영과 2개의 첨사진(僉使鎭)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으며, 경상좌수영의 권역별 핵심지역은 동래의 좌수영과 부산포, 다대포 3개소였다.

임진왜란시 동래와 좌수영 일대는 수군이 배치되어 있어 육·수전을 수행했으며 경주와 좌병영 일대에서는 육전을 수행했다. 당시 경상좌수군의 군사체제는 좌도의 모든 해안 지역을 담당하는 개념이 아니었으며 중요 지역이었던 동래 인근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1592년 초기에 실시된 대대적인 수군기지의 위치조정에 의해 경상좌도의 수군 진포는 대부분 좌수영, 부산포, 다대포 일대로 배치되었다.<sup>14)</sup> 경상좌수군의 진포가 위치조정을 통해 밀집배치된 것은 좌도의 신장된 해안과 동래 일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좌수영의 예하 수군을 신속히 동원하고 함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는 육전론이 주도적이었으

- 
- 13) 왜구는 섬과 섬을 연하여 이동했기 때문에 주로 출몰하는 지역은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해안이었다. 왜구는 주로 대마도에서 작은 섬들을 경유하며 남해의 미조항까지 진출한 이후 전라도 또는 경상우도의 해안에 출몰했다. 경상좌도의 경우 경주 이북은 위협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미 성종대에도 경주 이북의 육·수군을 경상우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 『성종실록』 17년 11월 22일 계해
- 14) 울산의 서생포와 염포에서는 수군만호가 운용되었다. 그러나 동래현 진보에 의하면 1592년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를 조정할 언급에 서생포와 염포는 없다. 따라서 서생포와 염포의 수군도 1592년 경상좌수군의 대대적인 위치 조정시 통·폐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2, 경상도 울산군 판방; 권23, 경상도 동래현 진보

나 이러한 논의는 모든 수군작전을 포기하고,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었다.<sup>15)</sup> 조정의 논의 내용을 보면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하고자



그림 1. 1592년 경상좌수군 진포(鎭浦)의 위치

※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진보

15) 기존의 방왜육전론 연구에 의하면 당시 조정의 논의 결과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시 경상도 지역에서 수군작전이 부재했던 원인을 '방왜육전론'으로 설명한다. 장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86), pp. 56~159.; 임진왜란 전 조선 조정의 논의에서 일본은 수전에 강하고, 육전에 약하기 때문에 조선 수군을 육군으로 전환하여 일본군이 육지에 상륙하면 육군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시 조선 수군은 편제와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초기 경상우수군과 전라좌·우수군의 합대가 경상도 해역에서 작전을 실시했다.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육전을 치를 것을 감안하여 축성에 힘쓰자는 것이었다.<sup>16)</sup> 조선 수군은 각 진포에 분산되어 있어 대규모 일본군이 진입하는 경우 각개 격파될 수 있는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sup>17)</sup> 임진왜란시 경상좌도의 경우 동래 인근의 3개 거점을 중심으로 경상좌도 수군이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일본군 함대가 부산포에 상륙하자 수군 소속의 고을<sup>18)</sup>인 동래 일대의 수군은 육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경주진 관 소속의 제진의 병력이 동래성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포 전투에서 조선의 통신체계는 상당히 원활하게 작동되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지휘하는 일본군 1번대는 대마도의 대포(大浦)를 출발하여 1592년 4월 13일 18시 부산포의 절영도 근처에 도달했다.<sup>19)</sup> 일본군의 이동상황은 봉수활동의 주요한 역할인 후망(候望)에 의해 각 지휘계통으로 보고되었으며 경상도는 각 제진별 동원이 실시되는 등 유기적인 군사체제가 작동되었다.<sup>20)</sup> 4월 13일 16시 가덕도의 응봉 봉수(烽臺)와 연대(烟臺)<sup>21)</sup>에서 90여 척의 배가 부산포로 이동하는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첩보는 경상도의 좌·우병사, 수사와 경상도 겸순찰사인 김수에게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전파체계에 의해 4월 15일 20시 무렵 순천에 있는

16) 『선조수정실록』 24년 7월

17) 장학근, 앞의 논문, p. 152.

18) 임진왜란시 경상좌도의 수군 소속의 고을은 동래와 기장 2곳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수군 진포가 위치한 연해안의 고을은 수군 소속이었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옥포해전의 승리를 보고하는 장계에 의하면 기장에 살던 윤백련의 아버지는 대대포 수군이였다. 또한 윤백련의 주인이었던 기장 사람 김진명은 일본군이 상륙하자 부산포로 이동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기장 역시 수군 소속의 고을임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제1차 옥포 승첩을 아뢰는 계본

19)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34.

20) 봉수제도의 역할은 봉화의 전파와 후망이며, 이는 결국 각 진관의 군사동원을 작동하게 하는 첫 시동의 역할을 했다. 연해지방에서는 봉수별 오장(伍長)이 진장(鎭長)에게 관측사항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근대 시대의 군사동원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과 군마, 물자동원의 신속성을 위한 기능으로 보인다. 『국역 만기요람』 군정편 1, 봉수: 『국역 증보문헌비고』 권124, 병고16 봉수2

21) 가덕도에는 봉수와 연대가 2곳 이상 설치되어 운용되었는데 이 봉수·연대에서 대마도와 일대의 선박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중종실록』 39년 9월 26일 임술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도 공문이 전달되었다.<sup>22)</sup> 이를 통해 봉수체계에 의한 최초보고와 추가보고가 각종 수단에 의해 경상도 여러 지역으로 신속히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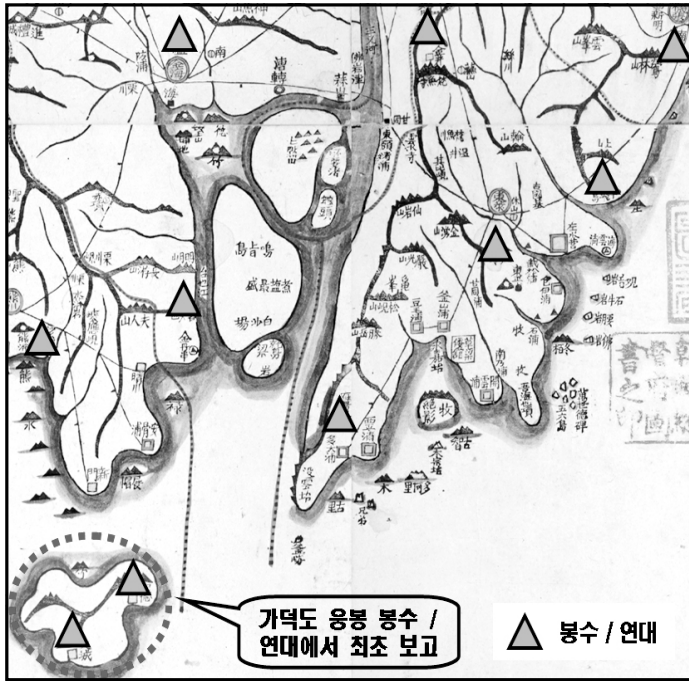


그림 2. 부산포 일대 봉수체계

부산포 일대의 조선 수군은 전쟁준비가 한창이었으나 대규모의 일본군 함대가 부산포 앞바다에 진입하여 압박하자 수군 병력을 동원하여 육전을 실시했다. 당시 부산포의 전투준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 의하면 부산포에 동원된 조선군 전투병력은 600여 명이었으며 '튼튼한 가죽갑옷과 철모'를 착용하고

22)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 1~3

활과 승자총통을 사용했다. 또한 해안에서 부산포성에 이르는 경로에 대량의 마름쇠가 설치되어 있었다.<sup>23)</sup> 부산포첨사 정발은 4월 13일 절영도에 있다가 일본군의 첩보를 접하고 부산포로 이동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전투 당일 정발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정발은 군사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부산포 전투에서 살아남은 토병(土兵) 가운데 3명 이하의 아래 진술에 의하면 정발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첨사가 사냥을 나갔다가 왜선이 무수함을 보자 급히 부산진에 돌아와서 성 밖의 주민과 군인 등을 독촉하여 빠짐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중략) 전선, 방패선, 중선 등 도합 세 척을 모두 배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에 가라앉게 한 뒤에, 첨사는 남문의 성루에서 밤을 지냈습니다.<sup>24)</sup>

부산포는 앞바다에 절영도가 있어 양쪽의 수로가 차단되면 포구에 갇히는 구조였다. 다수의 일본군 함대가 부산포 앞바다로 진입하여 절영도 앞에서 정박하면 좁은 지역에서 조직적인 수전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선 수군은 진포를 기반으로 전함이 출격하여 해전을 실시하는데 함대기지인 포구에 대규모 적 함대나 병력이 접근하면 함대 동원과 전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포 앞바다로 진입한 700여척의 일본군 함대는 인근 조선 수군의 진포를 압도했기 때문에 부산포첨사 정발이 인근 수군 전함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수군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정발은 부산포의 전함 3척을 일본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침몰시키고, 인근의 병력을 동원하여 부산포성에서 육전을 준비했던 것이다. 조

23) 승자총통은 동조총(銅鳥銃), 동소총(銅小銃) 등으로 불리우며, 철환과 화살을 발사했다. 이순신이 함대에서 승자총통을 사용하여 상당수의 일본군을 사살했고, 권율은 행주 전투 시 승자총통을 주요 화기로 사용했다. 이를 보면 승자총통은 임진왜란 전 이미 관군의 주요 화기로 대량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포에 있었던 1,000여정의 동으로 만든 사석포는 철환과 화살을 발사하는 개머리판 없는 소총이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승자총통임을 알 수 있다.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서울: 가람기획, 2004), p. 221;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난의 기록』 정성화·양윤선 역(서울: 살림, 2008), pp. 53~54.

24)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3일

선은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새로이 성을 쌓거나 기존의 성곽을 보수했기 때문에<sup>25)</sup> 부산포와 다대포 같은 첨사진의 경우 육전이 가능한 성곽을 갖추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4월 14일 부산포 우측의 우암(牛岩)에 대병력을 상륙시킨 이후 3개 부대로 편성하고 일출시 부산포성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했다.<sup>26)</sup> 우암에서 공격한 부대는 부산포성의 후위인 뒷산을 차단하고 공격을 계속했다.<sup>27)</sup> 일본군은 조총과 활로 사격하며 해자를 극복하기 위해 해자 위에 널빤지를 깔고 성벽에 접근한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면에서 일제히 성벽을 올랐다. 조선측은 첨사 정발과 부사맹 이정헌이 지휘했으며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은 3시간 정도 지속되었다.<sup>28)</sup> 전투가 지속되자 수적으로 우세했던 일본군은 성벽을 넘기 시작하여 성내로 진입했으며 시가지에서도 2차례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결과 정발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선군은 전사하고 소수는 포로가 되었다.<sup>29)</sup> 또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주력 부대는 부산포성에 주둔하여 정비를 취하고 후속부대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다대포를 점령하기 위해 일부 부대를 파견했다.

부산포를 점령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4월 14일 당일 부산포 남서쪽의 수군진인 다대포를 공격했다. 부산포를 함락한 일본군이 부대를 파견하여 다대포성을 포위했으나 첨사 윤홍신이 이를 격퇴했으며 4월 15일 병력이 증강된 일본군이 공격했다.<sup>30)</sup> 윤홍신은 최후까지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했으며 다대포성은 함락되었다. 즉, 4월 14일 1차 전투에서 소규모 일본군 부대를 격퇴하고 4월 15일 2차 전투에서 패한 것이다.

25) 『선조수정실록』 24년 7월

26)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3

27)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3일

28)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36.

29) 프로이스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서 조선군의 용맹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 부산포 전투였다.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난의 기록』 정성화·양윤선 역(서울: 살림, 2008), pp. 54~55.

30) 정중환,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216~217.



그림 3. 다대포와 서평포 위치

다대포 역시 부산포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동향을 탐지하고 있었으며 후망에 의해 신속한 동원이 실시되어 수성전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부산포 일대에서 일본군의 접근에 대한 조선군 전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sup>31)</sup> 응봉

31) 다대포 역시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절영도 인근에 육박한 일본군 약 700여 척의 함대에 대한 척후활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덕도에서 최초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일본군 선봉대는 추이도(부산시 사하구 살이섬)를 경유했기 때문에 다대포에서 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 수군이 주요 진포에 대한 일본군의 대함대의 접근은 수군의 동원과 조직적인 수군작전에 큰 압박을 주었을 것이며 이 결과 다대포침사 윤희신 역시 다대포성내로 인근 병력과 물자 등을 동원하여 육전을 실시한 것이다.

(鷹峰) 봉수대는 다대포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sup>32)</sup> 연대가 설치되어 운용되었다. 최초 가덕도 봉수대의 첩보보고와 동래의 황령산 봉수대의 기능을 보아 응봉 봉수대 역시 봉수군의 후방에 의해 일본군의 정보가 보고되는 등 초기 전파체계가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응봉 봉수대의 지휘자인 오장(伍長)이 인접한 진장(鎭將)인 다대포첨사에게 적변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동래 인근에서는 이러한 통신체계의 작동에 의해 다대포, 부산포, 동래, 김해 등 인접 제진의 군사동원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었다.

서평포는 다대포로 합속되었기 때문에 서평포의 수군 병력은 다대포성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서평포의 경우 전투기록이 전혀 없는 것에 비해 당시 다대포성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평가되었으며 다대포첨사 윤홍신이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sup>34)</sup> 즉, 서평포는 다대포에 합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평포의 수군은 전쟁 발발 이전 이미 다대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개전 이후 육전으로 전환되자 다대포 성내로 동원되었을 것이다.<sup>35)</sup> 일본군은 부산포에서 육로를 이용하여 서평포를 경유하고 다대포로 진격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포 전투를 보아 다대포 역시 해당 제진의 병력을 동원하여 전투를 치른 것이다.

부산포 전투에서 살펴봤듯이 초기 경상좌수군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대규모 일본군 함대가 밀집된 경상좌도의 주요 수군의 진포에 진입했던 측면이 크다. 일본군은 부산포 일대를 봉쇄한 후 육지로 상륙하며 주요 진포를 각개 격파했다. 임진왜란 이전 적변발생시 수군작전의

3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봉수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진보

34) 부산포에 상륙한 일본군 1번대의 일부 부대가 서평포와 다대포를 함락시켰는데 다대포첨사 윤홍신이 대항하여 죽고 나자 인근의 진보가 붕괴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서평포에서는 전투가 없었으며 다대포에서 치열한 공성전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35) 1592년의 어느 날에 서평포가 다대포에 합속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군 진포의 위치조정 이후에도 서평포 만호는 곧바로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와 당시 수군의 전술과 동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 수군은 16세기를 거치며 왜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기 체계, 전술 그리고 해상작전을 비롯한 다방면의 변화를 겪었다. 먼저 무기 체계의 경우 을묘왜변 이후 대형 함선인 판옥선이 출현하고<sup>36)</sup>, 화약무기는 위력과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sup>37)</sup> 왜구의 등선육박전술<sup>38)</sup>에 대해 원거리 함포사격으로 대응하는 조선 수군에게 전술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당시 함포는 조준사격이 아닌 지향사격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함대를 구성해야 원거리 집중사격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

무기체계와 전술의 변화는 수군의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조선 수군은 함대를 편성하고 집중 운용하였다. 소규모 위협에 대해서는 1개 포구 또는 침사진 규모의 수군을 운용하지만<sup>39)</sup>, 대규모 적변시에는 각 포구의 함선을 동원하여 함대를 구성한 이후에야 조직적인 수군의 운용이 가능했다.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면 담당구역이 가장 좁았던 전라좌수영의 경우 해당 수군진관 소속의 5관 5포 수군을 동원하여 함대를 조직하는데 최소 3~4일이 소요되었음을 고려할 때<sup>40)</sup> 담당구역이 넓고 예하 수군의 규모가 더 큰 경상도의 경우 예하 수군을 집결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1592년 경상좌수군 진포의 위치 조정은 수군의 신속한 동원과 집중 운용을 위해서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체계에 의해 경상좌수영 소속의 진포는 제진별 군사동원을 실시했으나 임진왜란 직전 진포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일본군이 진입하

36)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pp. 42~45.

37) 허선도, 『조선시대 화약병기사 연구』(서울: 일조각, 1994), pp. 207~208.

38) 등선육박전술(boarding tactics)은 직접 상대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접전을 벌이는 전술이다.

39) 1587년 발생한 손죽도 왜변시 왜구는 18척 규모였다. 최초 전투에서 녹도권관이 녹도의 수군(1개 포구)으로 접전하다가 전투 결과 전사했으며 왜구는 가리포에 복병한 조선수군을 기습하여 가리포침사가 부상한채 퇴각하기도 했다. 즉, 상황이 발생한 최초지역에서는 해당 포구 수군의 병력이 출동하여 초동 조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20년 2월 26일 을유, 27일 병술

40)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1

자 분군법에 의한 조직적인 수군 작전을 할 수 없어 육전을 치렀다. 일본군의 상륙 이후 부산포와 다대포의 수군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육전을 치렀으며 일본군이 부산포를 함락하고 동래를 포위하자 경상좌수군은 조직적인 해상작전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상좌수사 박홍은 경상좌수군의 기반을 상실하자 더 이상 수군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병력을 이끌고 육전을 수행했다.

제승방략에 의해 경주진관의 병력은 동래로 집결했으며, 경상좌병영군 역시 동래로 이동하고 인접한 대구진관 소속의 일부 제진이 전진 배치되었다. 부산포가 함락된 4월 14일 이미 적변 소식의 전파에 의해 인접 고을의 병력이 동래성으로 집결했다.<sup>41)</sup> 최초 적변이 발생하면 해당 거진 소속의 제진 병력이 집결되었으며, 병마절도사 역시 병영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는 초기 지방군의 군사체제가 작동된 것이다. 동래성에 동원된 주요 제진의 수령 및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표 1〉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제진의 군사 이동

직 책	품계	성명	이동경로	전투편성
동래부사	종3품	송상헌	·	·
조방장	?	홍윤관	·	·
교수	종6품	노개방	·	·
대장(代將)	?	송봉수	?	·
병마절도사	종2품	이가	좌병영 → 동래	·
양산군수	종4품	조영규	양산 → 동래	중위장
울산군수	종4품	이연성	울산 → 동래	좌위장
경주판관	종5품	박의장	경주 → 동래 → 경주	·
밀양부사	종3품	박진	밀양 → 동래 → 소산역	·
영산현감	종6품	강효윤	영산 → 양산	·

※ 출처: 신경 『제조변방지』 1; 이탁영, 『역주 정만록』;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

41) 『난중잡록(亂中雜錄)』에는 동래성이 함락된 날짜가 4월 14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실제 동래 전투일은 4월 15일이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4일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초 군사체제가 작동되면 해당 거진(巨鎭)에 인접한 거진의 일부 제진장이 병력을 이끌고, 이미 초동조치를 위해 수령이 출동한 고을에 주둔했다. 이는 진관체제와 제승방략의 분군법에 의한 군사체제가 작동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임진왜란 초기 영산(靈山)현감 강효윤은 영산진의 병력을 이끌고 양산읍성에 주둔했다.<sup>42)</sup> 이때 양산(梁山)군수 조영규는 양산진의 병력을 이끌고 동래성에 입성하여 분군법에 의해 중위장(中衛將)으로 전투편성된 상태였다. 밀양부사 박진도 역시 밀양진의 병력을 이끌고 동래성에 입성하고자 이동했다.

경상도에는 사전에 조방장이 파견되어 운용되었다. 경상도 검순찰사 김수는 자신의 군관 중 조방장을 겸했던 인원을 경상좌·우도로 각각 1명씩 파견했으며, 수군에도 조방장을 파견했다. 이때 경상좌도에는 홍윤관이 경상우도에는 김경로가 파견되었고, 수군에는 이응성이 당포로 파견되어 있었다.<sup>43)</sup> 사전에 조방장을 파견하여 운용하는 것은 지방군현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지만 외부의 상당한 위협을 인지했을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였다.<sup>44)</sup>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남부지방에서는 조방장이 운용되고 있었다.

경상좌병사 이각은 초기 대응을 위해 부산포 인근의 주요 거점인 동래에 위치하였으며, 초기 기병부대 운용과 인접 진의 동원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이각은 4월 15일 오전 휘하 군사를 이끌고 급히 동래성으로 들어와 조방장으로 하여금 수백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격하도록 했다.<sup>45)</sup> 좌병사 이각은 동래 인근에 도달한 일본군에 대한 탐색전을 명령했다.

이각은 관방 지역을 차단하고 동래성을 외부에서 후원하고자 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좌병사의 부대와 함께 수성전할 것을 건의했으나 좌병사 이각은 동래성을 거점으로 수성전을 치르며 일본군을 고착하는 동안 관방지

42) 이탁영,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7일

43)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4일

44) 『성종실록』 10년 2월 10일 정유

45) 정중환, “임진왜란시의 부산지구전투”, 『군사』 2(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211~212.

역인 소산역(蘇山驛)<sup>46)</sup> 일대를 점령하고 야전을 치를 것을 주장했다. 다음의 언급을 통해 주장(主將)인 병마절도사는 성에 들어가 수성전을 지휘하지 않고 외부에서 부대를 운용하는 등 전체 상황을 관장하며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각이 가려 하므로 상현이 여기서 같이 지키자고 만류하니 이각이 듣지 않고 아병 20명만 남겨두면서 나는 대장이니 마땅히 밖에서 의각(驕角)의 세(勢)로 해야 한다 하고 그 별장과 같이 문을 열고 달아나서 소산에 진을 쳤다.<sup>47)</sup>

우리나라의 『제승방략』에도 감·병사는 모두 성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책응한다.<sup>48)</sup>

수성전을 지휘하는 역할은 병사의 예하 병마절제사, 병마첨절제사 등의 소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의 초기 패전 이후 초기 전투의 공과에 대한 평가에서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자는 포상되었으나 퇴각한 자는 비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영향에 의해 좌병사 이각의 조치는 모두 비난받았던 측면이 있었다.

조선군과 일본군은 4월 15일 저녁 무렵부터<sup>49)</sup> 공성전과 성내전투에 이르기까지 격전을 치렀다. 동래성의 전투준비는 잘 되어 있었다. 동래성의 성벽이 높았고, 축성공사를 하여 인해 방어력을 높였으며, 성내의 16곳의 창고는 주로 군량 말먹이, 화약과 무기가 저장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화력의 집중과 함께 사다리를 이용하여 성벽을 오르는 방법을 구사했다. 공성전시 조선군은 활과 투석을 활용하여 동래성의 일부 방면에서는 일본군을 격퇴하기도 했다. 일본군은 등에 꿰고 다니는 깃발을 활용하여 성벽의 조선군

46) 소산역은 동래부의 북쪽 15리(약 6.7km)에 위치한 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경상도 동래현 역원

47) 이공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4일

48) 안방준, 『묵재일기(默齋日記)』 3, 비어변론

49) 동래 전투의 발발 시간은 사료마다 다르지만 비교적 초기 전투의 기록이 상세한 프로이스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 의하면 일본군의 동래성 공격은 4월 15일 저녁 무렵이었다.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난의 기록』 정성화·양윤선 역(서울: 살림, 2008), p. 56.

사수의 시야를 방해하며 등성하기도 했다.<sup>50)</sup> 동래성 동북쪽 산의 경사진 지역에서 다수의 밀집된 일본군이 난입하기 시작하여 동래 전투는 성내 전투로 전환되었다. 약 2시간의 전투 결과 동래부사 송상헌을 비롯한 관군의 대부분이 전사했으며, 울산군수 이연함은 포로가 되었다. 전투 이후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래성의 전투물자와 군량, 군마 등 많은 물자를 노획하고 동래성에서 이틀 동안 정비를 취하는 것을 보아 동래 전투 역시 부산포 전투 못지않은 격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군이 동래성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차단되었으며, 최초로 동래성을 외부에서 지원한 것은 경상좌병사 이각과 좌수사 박홍의 부대였다. 조방장 홍윤관의 부대가 4월 15일 오전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에 대한 탐색전을 수행한 이후 복귀하여 일본군 1번대 본대의 규모를 보고하자 경상좌병사 이각은 소산역에 부대를 주둔시켜 관방 지역을 고수하고, 이곳을 기반으로 동래성을 지원하고자 했다. 일본군이 신속하게 동래, 좌수영으로 접근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활용할 수 없는 좌수영의 선박과 군량 등을 불태우고<sup>51)</sup> 좌수영 일대의 수군 병력을 온전히 보존하여 육전으로 전환했다.<sup>52)</sup> 이후 이각이 박홍과 함께 병영군, 수영군을 주축으로 한 부대를 이끌고 동래성 직후방까지 접근했으나 다시 소산역으로 후퇴했다.<sup>53)</sup> 이각의 부대가

50) 이 부분이 바로 동래 전투시간이 저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투시간이 주간이었다면 일본군이 깃발을 활용하여 성벽위의 조선군 사수들의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투시간이 해가 기울어 어두워지는 저녁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51)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6일

52) 채계공, 『국역 백운재충의공실기(白雲齋忠毅公實記)』 권1, 연보 20년 임진 4월 13일: 권 2, 계

53) 4월 18일 14시에 수령한 경상우수사 원균의 공문에 의하면 4월 15일 동래 전투 패전의 소식과 함께 전투시 경상좌병사 이각과 경상좌수사 박홍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즉시 회군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래전투 직전 경상좌병사 이각은 일본군과의 공성전시 외부에서 작전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끌고 동래성에서 빠져나와 동래성 북쪽의 소산역에 주둔했다. 또한 경상좌수사 박홍은 일본군이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량과 장비를 파괴하고 퇴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박홍은 일본군의 부산포 접근시부터 계속되는 첩보수집과 상황전파를 계속했기 때문에 박홍이 집을 먹고 좌수영성을 불태운 후 도주했다는 기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박홍은 일본군이 동래성에 근접하자 일본군이 좌수영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이후 예하병력을 이끌고 좌수영성을 떠나 이각이 있

소산역으로 퇴각한 이유는 동래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일본군 예비대에 의해 격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좌병사 이각은 15일 오전에 동래성을 빠져나가 소산역에서 주둔 중이었다. 그런데 동래 전투는 저녁 무렵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각이 박홍과 함께 동래성 직후방에 근접한 시간은 15일 오후였으며, 동래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의 예비대에 의해 격퇴되어 이각과 박홍의 부대는 소산역에서 다시 주둔하고 있었다.

동래성 북쪽의 관방지역인 소산역이 함락되면서 일본군은 동래 지역의 경상도 1차 방어선을 돌파했다. 소산역은 부산포, 동래를 지나 영남대로의 중로를 경유하여 북상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역이자 관방지역이었다. 동래부사 송상현과 조방장 홍윤관이 동래에서 나는 대화, 그리고 경상좌병사 이각과 밀양부사 박진이 소산역에서 나는 대화를 보면 소산 일대가 험준한 관방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府) 뒤에 소산(蘇山)이 있는데, 견고하고 험준하여 방위에 유리하오니, 나와 함께 나가서 그곳을 지키는 것이 어떠합니까?<sup>54)</sup>

소산을 지키지 못하면 영남은 우리 것이 아니오. 내가 앞에서 적을 견제할 터이니, 공은 뒤에서 점거하였다가 내가 패하면 공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이기면 공은 협공해 주시오.<sup>55)</sup>

박진은 동래성에 접근 도중 동래성 함락소식을 듣고 소산역에 있던 이각

는 소산역에 도달하여 부대를 재편한 것이다. 이후 동래전투시 동래성 북방으로 접근했으나 결국 퇴각한 것이다. 이각과 박홍의 부대가 동래성 뒤쪽까지 접근했다가 즉시 회군했다는 것은 두가지 상황으로 해석된다. 첫째, 동래성의 외부지원을 위해 접근했으나 동래성이 함락되고 있었다. 둘째, 동래성 북쪽에 도달했으나 일본군의 일부 부대와 접전하여 퇴각했다.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6일: 이순신,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4월 18일 정미

54) 박동량, 『기제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1, 4월 14일 계묘

55) 박동량, 『기제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1, 4월 15일 갑진

의 부대에 합류했기 때문에 밀양진의 병력이 소산역에 합류한 시간은 15일 저녁 동래성이 함락되던 시점인 것이다. 동래성 함락 이후 일본군 선봉대는 소산으로 진출했다. 방어에 유리했던 소산의 전방에서 밀양부사 박진이 밀양부의 능사창군(能事槍軍) 3개 부대<sup>56)</sup> 등 약 500여 명의 병력으로 방어하고, 좌병사 이각은 병력을 이끌고, 후방에서 지원하고자 했다.

소산 전투의 결과 일본군 선봉대는 소산을 돌파했으며, 박진과 이각의 부대는 퇴각했다. 4월 15일 저녁에 전투가 시작되어 점차 밀양진 부대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좌병사 이각은 부대를 이끌고 언양으로 후퇴했다.<sup>57)</sup> 이후 좌병사 이각과 좌수사 박홍은 예하 병력을 이끌고 언양에 결진한 이후 이각은 좌병영으로 퇴각하고 박홍은 경주로 퇴각했다.<sup>58)</sup> 박진의 부대 역시 철수하여 양산을 거쳐 밀양으로 퇴각했다.

분군법에 의해 양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영산현감 강효윤은 양산 전투에서 패배하여 부대를 이끌고 2차 관방지역인 황산잔도와 작원을 지나 퇴각했다. 양산군수 조영규는 동래 전투에서 전사했지만 양산읍성에는 강효윤의 영산진 부대가 수성중이었다. 이미 경상도 1차 방어선이 모두 돌파되어 양산의 수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4월 16일 소 요시토시의 예하 부장이 기병 10여 기를 이끌고 양산성 일대를 정찰한 이후<sup>59)</sup>, 일본군 선봉대의 본대가 영산성을 공격했으며 결국 강효윤은 복문을 열어두고 밀양 방면으로 퇴각했다.<sup>60)</sup> 4월 17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이 양산성에 입성하고, 4월 18일에는 동래성에서 2일간의 전투휴식을 취한 1번대의 본대가 양산성에 입성했다. 이때 1번대의 선봉대는 이미 작원 일대에 진출한 상황이었다.<sup>61)</sup>

56)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6월 19일

57) 경상좌병사 이각과 경상좌수사 박홍이 언양에서 만나 합진하였다. 그러나 동래 전투시 이각과 박홍은 동래성에 근접하였다가 일본군에 의해 격퇴되었으므로, 소산 전투시에도 동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1, 임진년 4월 15일

58) 동래 전투 이후 이각과 박홍이 울산서쪽의 언양에서 진을 쳤다가 이각은 울산의 좌병영으로 박홍은 경주로 이동했다. 신희, 『상촌집(象村集)』 권56, 본국이 병화를 입은 기록

59)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49.

60) 이택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6일

61)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50.

밀양부사 박진은 영남대로상의 2번째 관방지인 천도의 험로를 차단하고 방어중이었다. 황산천 잔도와 작천 잔도는 부산포에서부터 영남대로의 중로를 경유하여 북상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험로였다.<sup>62)</sup> 밀양 전투의 주요 전장은 황산천 잔도를 지나 작천 잔도의 끝에 위치한 작원 일대였다. 작원(鵲院)은 조선초기부터 낙동강 수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왜인들과 사신들의 물품을 점검하기 위한 검문소와 역관이 위치한 곳이었다. 양산에서 육로로 이동한다면 작원을 거쳐야만 밀양으로 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원 일대는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관방상의 요충지였다.

박진 휘하의 병력은 작원 일대의 험로를 방어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순찰사 김수의 조치로 진주와 함안의 군사들이 작원 일대로 이동했다. 4월 15일 소산 전투에서 패배하여 밀양 방면으로 후퇴한 부사 박진은 병력을 수습하고 방어준비에 착수했다. 박진은 밀양읍성까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작원 일대를 차단하고자 했다.<sup>63)</sup>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는 16일 낮 밀양부에 도착했으며<sup>64)</sup> 작천·황산천 잔도에서 북상하는 일본군을 차단하고자 밀양부사 박진의 후원을 위해 인근 지역의 군사를 동원하여 작원으로 이동시켰다.

작원 전투에서 박진 부대는 일본군의 우회기동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다. 4월 18일 박진의 부대는 병력의 열세로 황산천과 작천 잔도 전체 구간을 차단하지 못하고, 마지막 작천 잔도 일대를 차단한 상태였다. 일본군 1번대의 본대는 양산성에 주둔하고 선봉대가 황산천 잔도를 지나 작천 잔도의 끝에 위치한 작원에서 박진의 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부사 박진은 작원에서 작천 잔도를 통해 중대로 접근하는 일본군을 방어했으며, 전투는 매

62) 양산에서 밀양으로 가는 영남대로상에는 유명한 천도(遷道)가 있었다. 이 길은 양산군 물금에서 밀양부 남쪽 3km 지점까지 총길이 30km의 험로였다. 이 구간은 낙동강 하구의 협곡부에 해당되어 강의 양안까지 산지가 접근하여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도중에는 자연제방으로 막힌 넓은 배후습지가 발달한 곳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4곳의 10~50m 절벽 위와 4곳의 자연 제방 상에 놓여있었다. 최영준, 『영남대로』(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pp. 197~199.

63) 이궁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6일

64)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6일

우 치열했다.<sup>65)</sup> 1번대의 선봉대는 작원의 좁은 지역에서 조선군에 의해 선두가 차단되자 주력을 우회기동하여 금병산 능선에 올랐다.<sup>66)</sup> 군관 이대수와 김효우가 이끄는 일부 부대가 금병산 능선으로 올라가 우회 기동하는 일본군 부대를 지연시켰으나 결국 일본군 부대는 작원의 우측면에서 조선군의 퇴로를 차단했다.<sup>67)</sup>

작원에는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의 명령에 의해 진주판관 김시민의 정예 기병 50여 기와 함안군수 유송인의 병력 100여 명이 증원된 상태였다. 또한 참퇴장을 두어 도망병을 즉결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군기와 사기 저하에 따른 전선이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작천 잔도를 우회하여 금병산을 넘어 조선군의 퇴로를 차단했으며 작원에서 조선군을 포위했다. 전투 결과 밀양·진주·함안의 병력은 대부분 전사하고, 김시민은 유송인을 구출하여 퇴각했으며 박진은 밀양부로 퇴각했다.<sup>68)</sup>

작원 전투에서 패배한 부사 박진은 겨우 밀양부로 복귀하여 부대의 각종 시설과 무기고 등을 불태우고 후퇴했다. 박진이 일본군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물자를 불태우고 성을 빠져나갈 무렵 이미 작원에서부터 추격한 일본군에 의해 밀양성은 포위된 상태였다. 박진은 홀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영산 방면으로 퇴각했다.<sup>69)</sup> 박진이 작원에서 방어할 무렵인 16일 낮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는 밀양성에 도착했으나 4월 17일 영산으로 물러나 주둔했다가 4월 18일에 작원 전투의 패보를 듣고 초계로 후퇴하였다.<sup>70)</sup>

65)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66) 박진의 부대가 작원에서 작천 잔도를 통해 공격하는 일본군을 차단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선두 부대로 박진의 부대를 고착시키고 다수의 병력으로 우측의 산을 넘었다. 이 산은 금병산이다.

67)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50.

68)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8월 4일

69) 이탁영의 『정만록』에는 작원 전투와 밀양 함락이 벌어진 날은 4월 18일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7일;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8일

70)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8일

## (2) 경상우도 초기 전투와 동원과정

전쟁발발 소식이 전파되자 경상우도 역시 제승방략에 의해 군사력이 운용되었다. 먼저 김해진관의 군사동원이 실시되었으며 분군령이 발령되자 경상도 중·북부 제진의 병력이 분군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편성했다. 경상우도에서는 김해진관의 김해와 창원의 우병영을 중심으로 동원이 진행되었다. 4월 19일 김해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김해성에는 초계군수 이유검이 중위장(中衛將)으로 전투편성을 마친 상태였다.<sup>71)</sup> 의령군수 오응창은 최초 전쟁 발발의 전과 이후 낙동강 수로를 경유하여 병력과 함께 김해로 이동하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김해성에 동원되지 못했다.<sup>72)</sup> 김해와 의령진의 병력이 김해로 집결하는 것은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한 것이다. 적변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거진과 인접한 거진은 즉시 제진 별 동원 이후 병력 이동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경상우도 중부 성주 지역의 제진은 분군령을 전달받자 제진의 병력을 이끌고 창원의 우병영으로 집결했다.

일본군은 초기에 부산, 다대포 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군 3번대의 함선 485척<sup>73)</sup>은 4월 19일 별다른 해상저지 없이 김해의 죽도로 진입하여 조선군 척후부대를 제압했다.<sup>74)</sup> 김해부사 서예원은 죽도 앞바다에 척후선을 띄우고 육지에는 척후부대를 운용하여 적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죽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접전 결과 일본 수군은 조선군의 척후선을 탈취했으며 연이어 일본군 3번대의 주력부대가 죽도에 상륙한 이후 조선군 척후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조선군 척후부대는 전투를 치루며 김해성으로 철수했으며 일본군 선봉대는 계속 추격하여 김해성을 2중으로 포위했다.<sup>75)</sup> 이후 일본군 3번

71) 이궁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8일

72) 이형석, 앞의 책, p. 254.

73) 『선조실록』 25년 8월 7일 갑오

74) 일본군 2번대와 3번대는 4월 18일 아침에 부산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번대는 당일 곧바로 부산포에 상륙하여 육상으로 북상했으나 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는 부산포에서 다대포 인근을 경유하여 김해 죽도에 상륙했다.

75) 이형석, 위의 책, p. 252.

대의 교두보 확보에 이어 일본군 4번대가 후속하여 김해의 해안에 상륙했다.<sup>76)</sup>

의령진의 병력이 도착하지 못했지만 김해성의 조선군은 병력의 열세에 비해 효과적인 수성전을 치렀다. 김해성의 서문은 초계군수 이유검이, 동문은 백응량의 활약으로 일본군은 궁시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sup>77)</sup> 김해부사 서예원은 처음에는 남문을 담당하다가 각 문을 순시하면서 종일토록 독전했다.<sup>78)</sup> 일본군은 전투가 장기화되자 전술을 바꿔 김해성의 전면공격에서 동문 방면의 집중공격으로 전환했다.<sup>79)</sup> 일본군은 김해성의 해자를 극복하고자 김해부 인근에서 보리 등 벼집을 묶어 해자를 메우며 동시에 사거리를 고려한 조총사격과 궁시, 사다리를 활용한 등성전술을 지속했으나 조선군 역시 치열한 방어로 대응했으며 당일 밤까지 함락되지 않았다. 일본군의 김해성 동부 집중공격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김해성 서문 방면에 대한 압력이 감소되었으며 초계군수 이유검은 서문을 통해 퇴각한다. 이후 부사 서예원 역시 서문을 통해 퇴각하였으며 일본군은 동문 쪽으로 진입하여 김해성이 함락되었다. 애초부터 워낙 병력의 차이가 상당했던 상황에서 종일토록 전투를 치르자 김해성의 조선군은 전투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당일의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이유검과 수성장 서예원이 퇴각한 것은 당일의 4번째 접전에서<sup>80)</sup> 일본군의 김해성 동문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

76)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4월 18일에 일본군 제3·4번대가 모두 김해에 상륙했다. 그러나 3번대의 선봉대만 보더라도 200여 척의 함대였으며 당시 일본의 상륙함대의 운용상 1개 번대의 함대를 단위로 기동했다. 따라서 최초 조선군의 척후부대를 제압하고 죽도에 상륙한 부대는 3번대이며 교두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김해의 해안지역에 조선군의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후속한 모리 요사나리(毛利吉成)의 4번대가 직접 김해해안으로 상륙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지마 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김유성·이민웅 역(서울: 경인문화사, 2008), p. 47.

77)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53.

78) 김해 전투에서 조선군은 열세한 병력으로 장기간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처음 김해성의 남문을 담당하던 부사 서예원은 성의 각 지역을 순행하며 독전했다. 이는 김해성에 동원된 조선군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성이 밤중에 함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해 전투는 격렬한 전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9) 김해 전투의 기록에 의하면 김해부사 서예원이 성에서 철수한 이후 일부 병력이 김해읍성의 서문, 남문, 북문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군은 결국 동문에서 성을 넘어 읍성에 진입한 것을 볼 때 김해 전투의 결정적 국면에서 일본군의 포위는 전체적으로는 느슨했으나 김해성 동쪽의 해자를 메우며 집중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선조실록』 25년 5월 10일 기사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창원의 우병영에는 우병사 조대곤의 부대가 있었으나 김해성 지원작전은 실패했다.<sup>81)</sup> 김해 전투가 발발하기 전 4월 18일 조대곤은 김해 노현(露峴)에 위치하여 김해와 창원의 관방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200여명의 선발대를 운용했다.<sup>82)</sup> 당시 일본군 3·4번대가 전력이 완전한 총 25,000여명의 병력이었다는 점과 일본군 공성전술<sup>83)</sup>을 고려할 때 일본군은 김해성을 포위한 이후 조선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부대를 배치했다. 조대곤은 김해성 일대의 일본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sup>84)</sup> 결국 일본군의 차단작전에 의해 김해성 구원이 저지된 것이다. 왜냐하면 신임 경상우병사 김성일이 4월 20일 우병영 인근의 해망원에 도착했을 때 조대곤의 부대가 이미 노현에서 해망원(海望原)으로 후퇴하여 주둔 중이었기 때문이다.<sup>85)</sup> 시기적으로 보아 김해성이 김해가 함락된 이후 노현에 있던 경상우병사 부대가 철수한 것이다.

김해 전투는 수성군이 단시간에 패배하지 않았던 초기 전역의 치열한 전투였다.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는 김해 전투 패전의 가장 큰 요인은 전투의 절정에서 초계군수 이유검이 퇴각한 것과 초기에 김해성으로 동원된 병력의 부족으로 보았다. 김수는 김해성 서문에서 지휘하던 이유검이 전투의

81) 조대곤의 행적은 대부분 김해 전투시 겁에 질린 채 창원의 우병영에서 부대를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조대곤은 우병영에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포위된 김해성에 대한 지원작전을 실시했다.

82) 이수봉, “반곡의 난중일기 고(1)”, 『호서문화연구』 5(충북: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85), p. 9.

83) 임진왜란시 일본군은 충분한 병력으로 공성전을 수행할 때 조선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최초에는 대규모 병력으로 성을 포위하고 이후 조선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부대를 운용하여 기동전을 실시하거나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일본군만의 고유한 공성전술이 아닌 동서양 고금의 공성전술이었다. 임진왜란 초기 전역의 공성전에서 일본군은 조선군에 비해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별도 부대를 운용한 조선측 지원군 차단작전이 가능했다.

84) 신임 경상우병사 김성일이 4월 20일 창원 우병영의 해망원에 도착했을 때 전임 우병사 조대곤이 해망원에 이미 후퇴했다는 점과 김성일을 보자마자 직인과 부절을 넘겨주고 이 탈하려고 한 것은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거나 일본군의 규모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0일

85)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0일

절정에서 퇴각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김수는 낙동강 수운을 통해 김해로 진입하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의령진의 병력이 익사하여 김해의 수성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김수는 4월 26일 거창에서 김해전투의 패전을 이유로 초계군수 이유검을 처형하여 군중에 효시했으며<sup>86)</sup> 최초 김해성으로 동원되지 못한 의령현감 오응창 역시 처형했다.<sup>87)</sup>

### (3) 경상순찰사의 조치

전쟁 초기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의 행적을 보면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하삼도에서는 전쟁준비가 한창이었으며 순찰사들은 도내의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점검 중이었다.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 역시 김해·진주진관의 수군진관과 경상우병영, 우수영을 순찰했으며 4월 14일 부산포 전투가 발발했을 때는 진주(晉州)에 있었다.<sup>88)</sup> 김수는 전쟁 당일 진주에서 부산의 급보를 접수하자 경상 좌·우도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계속 구원하러 나가게 했다.<sup>89)</sup> 부산포 현지에서 관측된 ‘일본군의 함선이 400여척’이라는 최초보고가 당시 지휘계통에 의해 경상 좌·우병영과 수영 그리고 순찰사에게 전파된 내용이었다. 다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부산에서 망을 보던 관리가 처음에 먼저 온 4백여척을 보고 주진(主鎭)에 전보하였는데, 변장(邊將)이 단지 처음 보고 받은 것을 근거로 이를 실제 수효로 여겼다. 그리하여 병사(兵使)가 장계하기를 ‘적의 배가 4백척이 채 못되는데 한 척에 실은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니 그 대략을 계산하면 약 만 명쯤 될 것이다.’고 하였으므로, 조정에서도 그렇게 여겼다.<sup>90)</sup>

86)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26일

87) 『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병진

88)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4일

89)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4일

90)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최초 부산포 인근의 봉수군 오장이 일본군의 규모 400여척을 최초 보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상좌병사 이각은 전쟁발발에 대한 장계를 올렸다.<sup>91)</sup> 이 최초의 첩보는 경상우도와 순찰사 김수에게도 전파되었다.

순찰사 김수는 지방군을 후원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특이한 점은 그가 곧바로 장계를 올리지 않고 일단 이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보 접수 당시 상황과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적변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먼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동래로 이동중이던 4월 15일 부산포 함락(4월 14일)에 대한 보고를 받아 조정에 장계를 올렸으며 분군령을 하달했다. 김수에 의한 분군법의 발령이 초기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김수의 막하에서 활동했던 이탁영의 『정만록』에는 분군법에 대한 언급으로 판단되는 기록이 있다.

급히 장계를 올리고 상도(上道)와 중도(中道)의 수령에게도 전령한 후에 함안에 이르니 이미 날이 어두웠다.<sup>92)</sup>

조선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면 먼저 해당 거진과 인접한 거진의 일부 제진의 동원과 병력 이동은 곧바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대응은 지방군 지휘관인 병사·수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즉,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하면 경상도의 하도(下道)는 초기 군사체제에 의해 초동 조치에 투입되는 제진의 지역이었다. 이미 살펴 보았듯이 경상우도의 경우 진주진관 소속의 초계, 의령진의 병력이 김해진관으로 투입되었으며 경상좌도의 경우 대구진관 소속의 영산, 밀양진의 병력이 경주진관으로 투입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경상도 지방군의 초기대응 이후 김수의 분군법 발령에 의해 성주·선산·상주·안동 지역의 병력이 각 병영으로 이동을 개시한 점과 일부 진관의 병력이 대구 일대로 집결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김수가 부산포 함락을 듣고 나서 경상도 중·상도의 제진장에게 전령한 내용은 제승방략의 분군법에 의해 경상도 중·상도 제진이 약속된 집결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

91) 경상좌병사 이각이 보낸 이 장계가 조정에서 접수한 최초의 전쟁발발 보고였다.

92)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5일

하는 것이다.

김수는 15일 저녁 함안을 경유하여 밤새 이동하고 16일 일출 무렵 칠원에 도착했다. 낙동강을 도하하여 영산에서 동래 전투(4월 15일)의 결과를 듣고 낮에 밀양에 도착했다. 김수는 경상도 내의 전 병력을 동원하는 징발령을 내리고, 각지에 분둔할 것을 명령했다.<sup>93)</sup> 일본군 1번대 선봉부대의 압박에 의해 소산역에서 방어하던 경상좌병사 이각은 좌병영으로 후퇴하고 밀양부사 박진 역시 후퇴하여 황산에서 방어를 실시했으며<sup>94)</sup> 양산마저 함락(4월 16일)되는 상황이 되자 김수 역시 일본군의 신속한 접근에 대비하여 영산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대구진관 지역으로 진입하는 관방지역인 황산일대의 전투에서 박진이 패하자 결국 김수는 초계·합천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 김수의 조치를 보면 경상도 겸 순찰사로서의 초동조치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기존 임진왜란 연구에서는 김수가 무능하고 겁이 많아 초기에 도주한 것으로 비춰지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이전 전쟁 준비를 하며 각 지역을 순행하고 군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진주에서 적변 상황을 보고 받았을 때는 신속히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수는 최초 동래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부산포 함락 소식을 듣고 밀양으로 이동한 것이다.<sup>95)</sup>

김수는 부산포 함락 이후 경상도 내의 분군령을 발령했으며 동래성의 함락 이전 이미 낙동강을 도하했다. 영산을 경유하여 밀양에 도착한 이후에는 경상도 도내의 총동원령을 발동했다.<sup>96)</sup> 즉, 최초 경상도 내의 분군법 발령은 각 진관의 병력과 물자를 분군하여 약속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초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sup>97)</sup>, 밀양에서 발령한 동원령은 각 진관별로 모든 병종을

93)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5~16일

94)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16~17일

95) 이궁익,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5일

96) 김수는 밀양에서 경상도 내의 모든 색군(色軍)을 징발하는 령을 내렸다. 색군은 다양한 계층을 지칭한다. 잡색군(雜色軍)은 평시에 군역을 지지 않는 계층인 중인·한량·역졸·노비로 편성되어 군적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즉, 경상도 내의 총동원령을 발령한 것이다.

97) 김수가 밀양에 입성했을 때 박진이 밀양진관의 3개 부대를 이끌고 황산으로 진출하여 성 내에는 약졸 100여 명만이 잔류하고 있었다. 김수는 인근의 청도·영산·창녕의 군사들

망라한 총동원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방어에 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전쟁 초기 경상도 감사 겸 순찰사 김수의 동원령

구 분	발령시일	발령장소	대 상	내 용
1차 발령	4월 15일	진주 반성현	경상도의 상도·중도	분군령
2차 발령	4월 16일	밀양	경상도 전역	도(道)내의 총동원

※ 출전 : 이탁영, 『역주 정만록』

김수는 일본군이 근접하여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다음 작전을 위해서 초계, 합천으로 이동했다. 밀양을 점령하고 곧바로 영산으로 진격한 대규모 일본군 선봉대가 황산을 통과했다.<sup>98)</sup> 따라서 일본군은 잘 발달된 내륙을 따라 신속하게 북상할 것이기 때문에 김수는 이를 피해서 서진하여 낙동강을 도하한 것이다. 일본군 1번대의 선봉대는 경상도 지방군의 초기 담당범위를 넘어 북상하고 있었다.

전라도에 지원군을 요청한 것도 일본군의 군사력이 경상도 지방군의 군사력을 넘어섰음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수는 전라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전라도 병력을 도내를 벗어나 경상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요청했다. 이로 인해 전라방어사 광영의 부대가 경상도로 투입되었다.<sup>99)</sup> 이후 전라방어사와 경상우방어사 부대를 독전하고, 병력을 지원했다.

김수의 시간별 행적을 볼 때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군사체제 작동은 신속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초기 신속한 전파체계에 의해 경상도 각지로 전쟁발발 소식이 전파되었다. 김수는 초기에 일본군의 규모를 약 1만명 정도로 판단하고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 동래로 이동했으며 부산포 함락 이후

이 가야 할 곳으로 가서 밀양에 병력이 부족했다는 언급을 한다. 즉, 4월 15일 진주 반성현에서 경상도의 상도·중도에 하달한 명령은 진관별로 군사동원을 실시한 이후 약속된 지점으로 이동하는 분군법까지 발령한 것이었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선조25년 5월 19일

98)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선조25년 4월 19일

99)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선조25년 4월 27일

대규모의 일본군과 접전하기 전까지 계속 밀양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2차례에 걸친 동원의 발령과 일련의 조치들, 그리고 전라도 경장 부대와 전라도 수군을 경상도 지역으로 투입시키는 과정 등을 볼 때 경상도 겸 순찰사로서 적절한 군사조치를 취한 것이다.

#### (4) 경상좌병영의 동원과정

일본군 2번대의 작전계획은 영남대로의 좌로를 따라 북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울산·경주 방면으로 진격했다. 일본군 2번대는 4월 18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양산·언양·경주방면으로 진격했다.<sup>100)</sup> 당시 경주진관의 조선군은 좌병영과 경주 2곳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경상좌수사 박홍은 경주에서 철수한 상태였다.<sup>101)</sup> 전쟁이 발발하자 경주관관 박의장은 급보를 받고 경주진의 병력을 이끌고 동래로 이동했으나 이각으로부터 경주를 방어하라는 명령에 따라 경주로 복귀했다.<sup>102)</sup> 즉, 경주진관의 지방군은 적변발생시 해당 지역으로 동원되는 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경주관관 박의장이 초기에 동래성으로 달려온 것은 적변이 발생했던 거진(巨鎭)이 경주진관이었기 때문에 진관체제의 초동조치에 의해 동래성으로 이동한 것이었다. 적변을 맞아 군사체제가 작동되면 해당 거진의 병력

100) 기타지마 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김유성·이민웅 역(서울: 경인문화사, 2008), p. 47.

101) 경상좌수사 박홍은 동래, 소산 전투 이후 경상좌병사 이각과 함께 언양에 진을 쳤다가 경주로 이동했다. 4월 16일 양산전투 이후 4월 17일 일본군 1번대는 2개 부대로 분진하여 이동했는데 일부는 언양을 거쳐 경주 인근에 진입하고 주력은 중로인 밀양으로 이동했다. 경주가 실제로 함락한 것은 4월 21일이었는데 당일 기록에는 경주읍성에는 경주관관 박의장과 장기현감 이수일이 있었으며 경주부윤 윤인함은 포망장의 직함으로 서천에 주둔했다. 기록상에는 경상좌수사 박홍이 이미 4월 21일 이전에 경주를 이탈하여 북쪽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일본군 1번대가 경주에 처음 근접한 4월 17일에 퇴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홍은 경상좌수군의 포진이 집중 배치된 동래 일대가 함락되고 동래에서 병력을 이끌고 퇴각할 때 이미 좌수영을 불태웠기 때문에 이미 수사로서 해상작전을 수행할 기반이 없었다.

102)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화가산현립박물관 소장 「임진왜란도병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 31(서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3), p. 175.

은 대부분 적변이 발생한 고을로 집결하여 조치하였다. 이후 병마절도사가 병영군을 이끌고 현장에 위치하여 초동 조치를 했다.

좌병사 이각이 경주판관 박의장을 복귀시킨 것은 경상좌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각의 초기 이동경로는 좌병영·동래·소산·동래를 거쳐 다시 소산·언양·울산의 좌병영의 순이었다. 이각은 동래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일본군에 의해 격퇴되고, 소산 전투에서 패배하며 언양을 경유하여 좌병영으로 퇴각했다. 경주진의 군사를 복귀시킨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다만 이각이 소산 전투에서 패배하여 경상도 1차 방어선이 돌파되자 좌병영으로 퇴각하면서 박의장의 부대 역시 복귀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이각은 경주와 좌병영을 거점으로 경상좌로를 통해 북상하는 일본군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다.

경주에는 경주, 장기진의 병력과 병영군 500여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일본군 2번대의 일부 부대가 언양에서 본대와 분진하여 경주로 진격하여 경주 전투가 발발했다. 최초 조정에서 적변 소식을 접하자 경장 파견과 동시에 경주부윤을 변응성으로 교체하도록 했다.<sup>103)</sup> 이에 겸 순찰사 김수는 경주부윤 윤인함을 포망장으로 임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인함은 좌병사 소속의 병영군 병력 500명을 경주진에 소속시킨 이후 이를 받아들여 포망장으로서 경주성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다. 경주판관 박의장은 전쟁 초기 동래로 이동했다가 병사 이각으로부터 경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수성전을 준비했지만 4월 21일 언양으로부터 진격한 일본군 2번대의 선봉대에 의해 경주가 함락되자 박의장과 장기현감 이수일은 경주 북쪽의 기계 방면으로 퇴각했다.<sup>104)</sup>

좌병사 이각은 좌병영성에 집결한 13개 고을의 병력으로 수성전을 준비하고 자신은 외곽에서 진을 치고 야전을 치르려 했으나 좌병영성은 결국 함락되었다. 이각은 이미 4월 15일 박진의 밀양진 부대와 함께 동래 북쪽의 소산에서 방어하다가 언양을 거쳐 울산에 위치한 좌병영으로 후퇴한 상태였다. 4월 21일 이각은 안동의 석전군(石戰軍)을 이끌고 서산으로 나가

103)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04) 최효식, 『경주부의 임진항쟁사』(경남: 경주시문화원, 1993), pp. 49~50.

서 진을 쳤으며 동원된 13개 고을의 병력은 좌병영성에서 수성을 준비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4월 22일 좌병영성에 진출하여 전투가 벌어졌으며 병영성은 결국 함락되었으며 병사 이각, 병마우후 원응두는 후퇴했다.<sup>105)</sup>

일본군 2번대는 경주·좌병영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1번대가 황산천·작천 잔도를 돌파하고 작원 전투를 치른 4월 18일 부산포에 상륙했다. 이미 일본군이 소산을 돌파하고 양산을 점령하는 등 조선군의 1차 방어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본군 2번대가 4월 22일 울산의 좌병영을 함락시켰다는 것은 1번대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경주와 좌병영이 함락이 비교적 지연된 것은 일본군 2번대 내부의 소요와 좌병영에 동원된 조선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번대가 양산, 언양, 경주 방면으로 이동하는 도중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이었던 사야가(沙也可)가 휘하의 병력 3,000명을 이끌고 조선측에 투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106)</sup> 좌병영의 동원을 살펴보면 먼저 4월 21일 당시 이각이 병영에서 나가 서산에서 진을 치려고 할 때 13개 고을의 군사들이 모두 도착하여 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이각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동원된 병력이 좌병영에서 싸울 것을 제안하며, 대신 정예군인 석전군(石戰軍)을 자신에게 예속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서산에 주둔했다.<sup>107)</sup>

초기 군사체제의 작동 과정을 보면 사전에 경장(京將) 소속으로 지정된 고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진관 예하의 용궁현감 우복룡이 계원장즉, 지원부대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경주로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상좌병사 이각의 명령에 의해 방어사에게 배속되기 위해 다시 복귀중이던 하양현의 병력이 우복룡의 부대에 의해 전멸당했다.<sup>108)</sup> 경주와 좌병영의 병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좌병사 이각은 방어사 소속으로

105)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2일

106) 기타지마 만지, 앞의 책: 한문중, “임진왜란시의 항왜장 김충선과 「모하당문집」”, 『한일관계사연구』 24(한일관계사학회, 2006), pp. 87~88.

107)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1일

108)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1일

지정된 하양진을 복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급한 때라도 경장의 소속으로 지정된 고을은 평소에 지정된 계획에 의거하여 경장 파견시 병력, 군기, 군량 등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이다.

좌병영의 동원과정을 볼 때 경상도 제승방략에 계획된 분군법에 의하면 경상좌도 안동 인근의 상당수 고을은 분군령 하달시 경상좌병영으로 집결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궁현과 하양현은 좌병영에 동원된 13개 읍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토 기요마사의 일부 부대가 울산 측방의 언양을 지나 좌병영을 공격했기 때문에 경주진에 동원된 진관 역시 좌병영에 동원된 병력에서 제외될 것이다. 당시 경상좌도 각 고을별로 명확한 상황을 감안하여 13개 고을을 도출한다면 전쟁초기 안동진관 소속의 대다수 고을의 군사들은 좌병영으로 집결했음을 알 수 있다.

### (5) 경상우병영의 동원과정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의 군사체제는 제승방략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작동되었다. 통신체계에 의해 경상우도의 전역에 4월 14~15일 내로 전쟁 발발의 소식이 전파되었으며, 각 고을은 제진별로 동원을 실시하였다. 초기 적변을 맞은 김해진관의 경우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거하여 진주진관 소속의 초계진의 병력은 김해로 이동했으며, 의령진의 경우 낙동강 수로를 활용한 이동 과정에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이 뒤집혀 손실을 보았으나 김해로 이동하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우병사 조대곤은 병영군을 이끌고 김해로 이동하였다. 삼포왜란, 을묘왜변시와 같이 병마절도사는 적변을 맞은 거진의 병력과 병영군을 이끌고 초동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일본군의 부산포 접근과 함께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지고 경상우병사 조대곤은 우병영의 병력을 동원했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 김성일이 신임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으나<sup>109)</sup> 아직 임지에 도착하지 않아 초동조치는 전

109) 김성일이 경상우병사로 임명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선조수정실록의 3월 기사에 있는 것을 보면 3월 하순에 임명되어 창원의 우병영으로 이동 중이었다. 『선조수정실록』 25년 3월

임자인 조대곤의 지휘 아래 수행되었다. 조대곤 역시 김수와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 이전 담당지역인 경상우도에 대한 준비순시를 실시하며 전쟁대비를 하고 있었다.<sup>110)</sup> 조대곤은 초기 전투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수 및 전파하고<sup>111)</sup> 병영군을 이끌고 김해 노현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선봉대 200여 명을 김해로 파견하여 적정을 파악하였다.<sup>112)</sup>

경상도 계승방략에 의하면 상주진관은 소속 제진이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운용되었다. 상주진관은 진관체제의 개편과정에서 소속 고을이 추가되었는데 초계, 함천, 거창을 제외한 구 성주진관의 고을이 대부분 포함되었다.<sup>113)</sup> 이 결과 상주진관에는 상주와 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권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분군법의 발령시 상주와 인근 함창, 문경의 병력은 대구로 집결하게 되어 있었으며, 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을의 병력은 경상우병영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었다.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우도 북부지역의 제진은 분군법의 발령시 대구 일대의 약속된 지점으로 집결했다. 부산포 전투 당일인 4월 14일 전쟁 소식이 경상도 북부의 상주까지 전파되면서 경상우도 역시 전 지역에서 제진별 군사동원이 실시되어 병력과 물자를 징발하고 있었다.<sup>114)</sup> 경상도 검순찰사 김수가 분군법을 발령한 것은 4월 15일 오후였으며<sup>115)</sup> 선산부사가 성주목사로부터 분군령을 접수한 시기가 4월 16일임을 감안할 때<sup>116)</sup> 상주목사가 분군령을 접수한 시점 역시 4월 16일 즈음이다. 상주목사와 함창군수가 상주, 함창, 문경의 병력 수천 명을 인솔하여 성주에 도착한 이후 대

110) 이순신의 기록에 의하면 1592년 3월 25일에 경상우병사 조대곤이 전라좌수영에 인접한 남해현을 순시하고 있었다. 이순신,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3월 25일 을유

111)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사변에 대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3

112) 선산부사 정경달이 4월 18일 창녕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대곤은 김해 노현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선봉대를 운용한 것으로 보아 우병사 조대곤 역시 전쟁 발발 초기부터 김해 인근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18일

113) 『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경술: 『역주 경국대전(經國大典)』 권4, 병전 외관직

114)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25년 4월 14일

115)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15일

116)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16일

구로 집결하기로 하여 낙진(洛津)에서 낙동강을 도하하고 칠곡의 석전(石田)에 도달하였으며 선봉대는 대구의 금호(琴湖)에 도달했다.<sup>117)</sup> 그러나 이미 대구에 집결한 제진별 부대가 전장공황으로 인하여 와해되면서 순변사 예하로 소속될 경상도 지방군이 온전히 흩어져 버렸으며, 상주 지역의 병력 역시 무질서하게 복귀했다.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하면 상주진관 예하의 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우도의 중부 지역은 분군법 발령시 우병영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었다. 선산부사 정경달이 전쟁 발발의 소식을 접수한 것은 4월 15일이었으며, 방략에 의거하여 장정들을 동원하여 선산부(善山府)의 군량을 약속된 지점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4월 16일 성주목사로부터 분군법 발령을 접수했다.<sup>118)</sup> 정경달은 선산진의 군사를 이끌고 이동하여 4월 17일 인동의 약목에서 신임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만나 4월 18일에는 창녕에 도착했다. 성주목사 이덕열과 판관 고현은 성주진의 병력을 이끌고 선산진 부대보다 앞서 남하하고 있었으나 현풍 인근부터 이동이 지체되었으며 4월 18일 저녁 창녕에 도착했다.<sup>119)</sup> 4월 19일 정경달의 선산진 부대가 창녕과 밀양의 경계지점에서 일본군 기병 40여명과 교전하였으나 지형이 불리하여 패배했다. 경상우병사 조대곤의 독촉을 받고 병력 500여 명과 군기, 군량 등을 수습하여 낙동강을 건너 창원부 경내로 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원 전투에서 패전한 진주판관 김시민과 함안군수 유승인을 만났다. 이후 칠원에 도착하여 칠원 수성장과 병력을 예하로 편성한 이후 김해 노현에 있는 우병사 조대곤과 합류한다.<sup>120)</sup>

신임 경상우병사 김성일은 남하 도중 충주에서 일본군에 대한 첩보를 처음 접수하고 신속하게 우병영으로 이동하여 지휘권을 인계받았다. 김성일은

117)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25년 4월 20~24일

118) 정경달이 기록한 성주병사(星州兵使)는 성주의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의 약칭이다. 十六日依事日先召一二運進星州兵使傳令曰主鎮軍人府使宜親自領率直到釜山於是終夜聚軍.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6일.

119) 도세순, 『용사난중일기(龍蛇亂中日記)』 임진년 4월 13일;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6일

120)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17~19일

4월 17일 선산에 도착하여 선산부사 정경달에게 이미 하달된 분군령에 의한 부대이동을 독촉하고 계속 남하했다.<sup>121)</sup> 조대곤은 4월 18일 김해의 노현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김해 일대로 200여 명의 규모의 정찰 부대를 운용하였으며 선산진에 전령을 보내 예하로 편성했다.<sup>122)</sup> 4월 19일 아침부터 시작된 김해 전투의 결과 야간에 김해성이 함락됨에 따라<sup>123)</sup> 우병사 조대곤은 4월 20일 노현에서 퇴각하여 우병영 인근의 해망원에 주둔시키고 있었다.<sup>124)</sup> 김성일은 의령의 정암진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우병영 인근의 해망원에서 전임 경상우병사 조대곤과 합류하여 지휘권을 인계받았다.<sup>125)</sup>

우병사 김성일의 지휘 하에 경상우병영군은 4월 20일 해망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조대곤 이하 군관, 병력들은 노현에서의 정찰 활동과 김해성 함락으로 인해 일본군의 전투력에 위축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방장 김경로가 이끄는 정찰 부대가 해망원으로 복귀하여 일본군이 배후를 차단했다고 보고하자 매우 동요했다.<sup>126)</sup> 김성일은 병영군으로 매복을 준비하고 정면에서 군관들과 정예병으로 공격하여 일본군 3번대의 선봉대를 격퇴시킨 이후 부대를 이끌고 함안으로 이동하여 주둔했다.<sup>127)</sup> 김해 전투 이후 일본군 3·4번대는 창원을 함락시키고 영산을 거쳐 북상했기 때문에<sup>128)</sup> 우병사 김성일의 부대는 대규모 일본군을 회피하여 함안으로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의 체포명령에 의해 김성일은 4월 22일 한성으로 올라갔으며, 이후 우병영군은 계속 조대곤이 지휘하였다.

121) 이수봉, “반곡의 난중일기 고(1),” 『호서문화연구』 5권(충북: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85), pp. 8~9.

122) 정경달, 『반곡난중일기(盤谷亂中日記)』 권5, 임진년 4월 18~20일

123)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p. 252~253.

124)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0일

125)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0일

126) 이노, 『역주 용사일기(龍蛇日記)』 부산대학교한일문화연구소, pp. 37~38.

127)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0일

128)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1일

### 3. 조정의 초동조치와 경장(京將) 부대의 전투

#### (1) 경장·중앙군 파견과 지휘체계 확립

경상좌수사 박홍이 올린 장계에 의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첩보가 조정에 보고된 것은 1592년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sup>129)</sup> 조정은 이에 대해 이일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중로(中路)로 보내고, 성응길을 좌방어사로 임명하여 경상좌도로 조경을 우방어사로 서로(西路)로 보냈다. 또한 조방장으로서 유극량은 죽령을, 변기는 조령을 수비하게 하고 전 강계부사 변응성을 경주부윤으로 삼아 내려보냈다.<sup>130)</sup> 이 조치로 인해 한양에서 급파되는 부대의 최상위자는 순변사 이일이였다. 경상도에는 이미 순찰사를 겸하는 관찰사 김수가 있었기 때문에 순변사와 순찰사는 품계상 중 2품으로 동등했다. 그러나 지휘체계면에서 동등한 급의 직위자의 존재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조선은 도(道) 이상의 군사력 동원 및 운용시에는 반드시 최상위자를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세웠으며, 최상위자는 왕으로부터 군령권을 위임받았다.

조정의 초기 전쟁계획에 의하면 경상도내에서 순변사 이일의 지휘 아래 경장부대와 지방군으로 수륙합동작전을 통해 일본군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조정은 순변사 이일을 비롯한 경장을 파견하면서도 전라도 지방과 계속해서 통신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도별 군사력 통제를 완화하여 전라좌수군이 담당지역을 벗어나 경상도 해역으로 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sup>131)</sup>

4월 19일 류성룡이 왕을 대신하여 군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는 도체찰사<sup>132)</sup>로 임명되었으며 후속병력에 대한 논의 결과 한성판윤 신립이 도순변

129) 이궁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7일

130)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31)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1

132) 도체찰사는 한 도를 넘어서 몇 개 도를 아울러 통치할 필요가 있을 때 파견되어, 체찰사안만이 아니라 행정군사 문제를 함께 처리했다. 이러한 체찰사제의 운영은 감사·병사의 임기제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순남, 『조선조기 체찰사제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7), pp. 182~183.

사로 임명된다.<sup>133)</sup>

신립(申瑰)을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에 제수하였다. 상이 친림하여 전송하면서 보검(寶劍) 한 자루를 하사하고 이르기를, “이일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중외(中外)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감(紫門監)의 무기(軍器)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sup>134)</sup>”

선조는 신립에게 순변사 이일 이하의 부대에 대한 지휘권한과 상벌권, 군사동원권, 군사물자에 대한 사용권 등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초기 지휘체계를 확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다.

## (2) 상주·충주 전투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하면 순변사 이일은 대구 인근에서 최종적인 부대편성을 완료하고 진법 훈련을 거친 이후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제승방략에 의해 경상도 남부지역의 제진은 분군법에 의거하여 각자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투편성을 실시했다. 겸 순찰사 김수가 분군령을 하달하자 경상도 중·상부의 경장 소속으로 지정된 제진은 대구 인근으로 집결했다. 그러나 대구 금호평에 주둔 중이던 경상도 지방군이 4월 19일 즈음 전장 공황에 의해 흩어졌다.<sup>135)</sup> 이는 근본적으로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포, 동래, 소산의 조선군 1차 방어선을 극복하고 4월 18일에는 작원 일대의 2차 방어선까지 돌파하면서 순찰사 김수에 의해 지휘되는 지방군의 담당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였다.

133)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34) 『선조실록』 25년 4월 17일 병오

135) 상주에 있던 조정이 상주목사 김해가 복귀한다는 소식을 접한 때가 4월 20일이었다.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25년 4월 20~24일, 따라서 상주, 함창, 문경의 병력이 칠곡 석전에서 와해된 때는 4월 19일 오후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때 상주, 함창, 문경의 선봉대가 대구 금호에 도착했는데 이미 집결지의 경상도 지방군이 와해되고 있었다. 대구 인근에서 순변사 소속으로 지정된 경상도 지방군이 와해된 시점은 4월 19일 즈음으로 판단된다.

순변사 이일은 대구의 집결지로 이동하면서 경로상의 병마와 군량을 수습하면서 통신체계를 유지했다. 조정에 전쟁 발발을 알리는 최초의 장계가 도착한 때는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조정의 조치에 의해 이일은 순변사로 임명되었으며 논의 끝에 이일이 조정에서 나온 시각은 4월 18일 2시경이었다.<sup>136)</sup> 그러나 한성의 정예병 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예병은 별장 유옥이 인솔하여 후속하기로 하고 이일은 4월 19일 군관 60여명과 동원된 정예병력을 이끌고 출발했다.<sup>137)</sup> 경장의 부대편성 방식에 따라서 영남대로의 고을에서 병력, 군마, 물자를 수습하며 남하하였다.<sup>138)</sup>

이일이 4월 21일 조령을 넘어 문경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이일은 일본군 선봉대가 조선군 지방군의 초기 방어를 돌파하여 경상도 중부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과 분군법에 의하여 대구에 집결했던 순변사 소속의 지방군이 이미 흩어졌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일은 4월 21일 문경에 도착했으며 조정에 죽음을 각오하는 내용의 장계를 올리고 상주로 향했다.<sup>139)</sup>

일본군이 이미 조선군 2차 방어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일은 남하를 중지하고 상주를 결전 장소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순변사 소속으로 지정된 상주 인근의 제진은 병력이 흩어져버렸기 때문에 이일은 경상도 지방군을 주력 병력으로 편성할 수 없었다. 이일이 문경과 가까운 상주에 4월 23일

136) 박동량,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1, 임진년 4월 17일

137) 이일이 조정을 하직하고 나온 이후 한성을 떠나 출발하는데 약 1.5일가량 소요된 것이다. 4월 17일 순변사에 임명되었으나 조정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때가 4월 18일 2시경이었다. 『징비록(懲毖錄)』의 기록에 의하면 이일이 명령을 받은 지 3일이 되도록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4월 20일에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1.5일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재사초(寄齋史草)』에 의하면 이일이 4월 21일 문경에 도착하여 장계를 발송했음을 알 수 있다.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毖錄)』 서애선생기념사업회, pp. 35~36.; 박동량, 『기재사초(寄齋史草)』 하, 임진일록1, 임진년 4월 17일

138)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4월

139) 『국조보감(國朝寶鑑)』에는 이일이 문경에서 조정에 올린 장계에서 대죄하였다고 한다. 이공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21일; 『국조보감(國朝寶鑑)』 권31, 선조25년 4월

도착한 것은 문경, 함창의 수성군과 물자를 수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일보다 조금 앞서 상주를 경유하여 남하한 우방어사 조정 부대의 보급 상황을 보면,

성문은 사방이 활짝 열려 한 사람도 없이 적막하였다. 조방장과 방어사가 성에 들어왔으며 징발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공궤(供饋)를 주재할 사람이 없었다. 간신히 얼마간의 간장을 얻어 그것으로 요기하고 곧바로 하도(下道)로 떠났다 한다.<sup>140)</sup>

즉, 상주의 병마와 군량, 무기 등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이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변사 부대는 더 이상 남하하며 군사력을 수습하여 편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일은 더 이상의 남진을 중지하고 상주에서 부대를 편성하고자 하였다.

상주에서 수습한 병력은 부족했지만 순변사 부대는 부대편성의 최종단계인 진법훈련을 실시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순변사 부대가 상주에 도착한 이후 2일 동안 상주판관 권길이가 흩어진 상주의 병력을 징발하고 저장된 군량을 분배하며 인근의 병력을 수습한 결과 약 1,000여 명 이상의 병력을 확보했다.<sup>141)</sup> 또한 최초 분군령에 의해 대구로 이동한 상주진의 선봉대를 이끌었던 김준신 역시 판관 권길과 함께 상주에서 병력을 수습했다.<sup>142)</sup>

일본군 1번대의 선봉대는 4월 24일 선산에 진출했으며, 저녁에는 본대가 상주 남쪽 20리(약 9km)의 장천(長川)에 도착하여 주둔 중이었다. 개령 사람이 이일에게 첩보를 보고했으나 적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일이 척후

140)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25년 4월 23일

141) 프로이스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는 초기 전투의 전개과정과 조선군 사상자를 비교적 자세히 기록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상주 전투의 결과를 보고하는 편지에 의하면 조선군 전사자는 1,000여명이었으며, 일부 조선군은 무성한 뒷산으로 퇴각하여 순변사 부대를 전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를 보면 순변사 이일의 부대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병력규모였을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프로이스, 앞의 책, pp.59~60.

142) 청도김씨상주파총친회, 「우공지재종숙참봉경신일기」 『절곡김준신선생유적』(대전: 보전출판사, 1988), p. 18.

부대를 활용한 정보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주의 순변사 부대는 편성, 병력규모, 전투준비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일은 이튿날 4월 25일 부대의 사기를 동요한 죄목으로 첩보자를 처형하여 전장 군기를 유지하고<sup>143)</sup> 부대 전체를 상주 북쪽의 북천(北川) 일대로 이동시켰다. 산을 배후로 한 평지에 진을 치고 대장기를 세우며 북을 치면서 진법을 연습했다.<sup>144)</sup> 즉, 군관들을 기간으로 급편된 병력의 대열을 이루고 부대편성의 마무리 단계인 습진(習陣)을 실시하였다. 습진을 실시했다는 것은 오위진법(五衛陳法)의 전투편제로 부대를 편성하고 진법을 연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주 북천에서 순변사 부대가 습진을 실시할 때 사근찰방 김종무 역시 지휘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은 경상우도 남부의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14개의 역(驛)을 담당하는 역도(驛道)의 책임자였다.<sup>145)</sup> 왜란 초기 역로를 통한 통신체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경상우도 역시 역로망 기능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에는 군마로 전환할 수 있는 다량의 역마와 역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sup>146)</sup> 감사와 병사는 긴급한 사태시 역마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sup>147)</sup> 따라서 사근도찰방이 상주에 동원된 것은 사근도의 군마와 역줄을 이끌고 순변사 부대에 합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주에서 습진할 당시 순변사 부대는 약 1,000여 명의 보기(步騎) 병종으로 구성된 것이다.

143) 상주·충주 전투에서 이일과 신립이 첩보 보고자들에 대해 참형을 가하는 것을 장수 개인의 성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조선군은 군율을 어기는 자는 참형에 처했다. 이는 당시 조선군이 부대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치를 강구했음을 말하며 또한 이는 전근대시대 군대군율의 보편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일, 『국역 제승방략(制勝方略)』 권2, 금령 27조

144) 신경,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1, 임진년 4월 25일

145) 사근도에 소속된 역은 14개소이다. 『경국대전』과 『만기요람』에 기록된 사근도 소속의 역 14개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시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역주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 외관직 경상도: 『국역 만기요람』 군정편1, 각 도 속역 경상도

146) 16세기 전반 전국의 모든 역도에는 찰방이 파견되었다. 이에 따라 사근도의 책임자는 역승에서 찰방으로 승격되었다. 정요근, “고려·조선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pp. 254~258.

147) 『역주 경국대전(經國大典)』 권4, 병전 역마

상주 전투가 발발하기 이전 조방장 변기가 순변사 부대에 합류했다. 변기는 4월 17일 조정의 명령에 의해 조령을 방어하는 조방장으로 임명되었다.<sup>148)</sup> 변기 부대는 조령을 향한 직로인 영남대로를 따라 남하하지 않고 충청도 내륙을 경유했다. 이는 우방어사 조경의 부대가 추풍령을 경유하지 않고 조령을 넘어 상주를 거쳐 영남대로의 우로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일본군 선봉대의 복상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자 경상도 내로 진입해야 하는 순변사, 우방어사 부대는 영남대로를 따라 이동한 것이다. 경장 부대는 주요 도로망을 경유하면서 인근 제진과 역원의 병마와 물자를 수습하는데 순변사와 우방어사 부대가 영남대로를 경유하였기 때문에 조방장 변기는 청주 일대에서 병마와 물자를 기반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조령 방어에 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기 부대는 상주 전투 하루 전 4월 24일 청주를 경유하고 있다가 급보를 접수하고 밤새 이동하여 상주 북천에 주둔한 순변사 부대에 합류했다.<sup>149)</sup>

일본군 1번대의 척후 부대는 순변사 부대가 습진(習陣)하는 것을 정찰했으며, 본대는 상주성을 점령한 후 북천 일대로 이동했다. 이일은 정찰을 위해 군관을 보냈으나 군관은 일본군 척후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고 순변사 부대는 산을 등지고 언덕 위에 진을 쳤다. 일본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본대를 중심으로 좌우익에 부대를 배치하여 전진했으며 소 요시토시의 부대는 이일 부대의 배후로 기동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세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의 일본군이 이일 부대를 포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sup>150)</sup>

상주 전투는 근접전에 의한 격전으로 단시간에 종료되었다. 이일 부대는 궁시로 공격했으나 양측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조총의 사정거리에 이르자 일본군은 조총 사격 이후 칼, 장창을 활용한 단병전술을 구사하며 근접전

148)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愆錄)』 서애선생기념사업회, p. 35.

149) 변기 부대의 군관들이 변기를 충청도 방어사라고 호칭했다. 이를 보아 변기가 충청도 청주를 통과하며 부대를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 선조25년 4월 25일

150) 이형석, 『임진왜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260.

을 벌였다. 순변사 부대는 피해가 가중되면서 대형이 와해되었으며 결국 이일, 변기 그리고 일부 병력만이 퇴각했다.<sup>151)</sup> 전투 결과 이일의 종사관 윤섬, 박호와 변기의 종사관 이경류<sup>152)</sup>, 상주판관 권길, 사근찰방 김종무를 비롯한 조선군 1,000여명이 전사했다.<sup>153)</sup> 포로가 된 역관(譯官) 경응순은 4월 28일 충주에서 강화접촉을 하자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서신을 가지고 조정에 왔다.<sup>154)</sup>

신립이 도순변사에 임명되면서 군사지휘체계상 하삼도 지역의 최상위자가 되었다. 하삼도는 감사가 순찰사를 겸하고 있었다. 경상도의 경우 지방군 지휘관인 병사, 수사가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감사 김수가 분군령을 하달하고, 도내의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또한 순찰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내로 투입되는 방어사 예하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파견되어 적변 지역에서 초기대응중인 부대에 대한 예비대를 편성 및 운용하는 개념이었다. 원수급 장수인 도순찰사 신립은 지휘체계상 겸순찰사 김수와 순변사 이일보다 상위이며 전선을 총 지휘하는 임무였다.

최초 조선의 작전계획은 충주에서 대규모의 도순변사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었다. 도순변사 신립은 한성의 정예 병력을 기간으로 전략적 예비대를 조직하고자 하여 각 도의 병마와 물자가 충주로 집결했으며, 일부 지방군 역시 충주로 이동했다.<sup>155)</sup> 도순변사 부대는 경상도 외부의 주요 거점인 충주에서 부대를 편성함으로써 경상도 지방군은 순수하게 경상도내에 진입한 경장과 지방군 지휘관에게 소속되었다. 선조가 신립을 도순변사로 임명하면서 하삼도의 동원·군령권을 일임했다. 신립이 한성에서 출발할 때 한성의

151) 이형석, 앞의 책, p. 261.

152)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5일

153)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愆錄)』 서예선생기념사업회, pp. 43~44.;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난의 기록』 정성화·양윤선 역(서울: 살림, 2008), pp. 59~60.

154)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愆錄)』 서예선생기념사업회, p. 49.

155) 전라도, 충청도 지방군이 집결했으며 원주의 군사들도 집결한 것으로 보아 강원도 지방군의 일부도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사, 재판, 외사의 서류, 한량 등 활을 쓸 수 있는 자 수천 명을 거느렸으며, 조정 조관(朝官)들은 1인당 군마 1필씩 징발했다.<sup>156)</sup> 또한 군기시(軍器寺)의 병장기를 분배했다.<sup>157)</sup> 신립은 군관 80여 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한성을 떠나 남하하면서 계속 병력을 수습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했을 때 동원된 병력은 8,000여 명이였다.<sup>158)</sup> 이 병력은 충청도 병력만이 아니고 한성의 정예병, 금군(禁軍), 종족(宗族) 100여 명, 무관 약 2,000여 명<sup>159)</sup>과 강원도 원주의 정예병까지 포함된 규모였다.<sup>160)</sup>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부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신립의 부대에 소속되기 위해 전라도 조방장 이유의는 병력 2,000명을 이끌고 전라도를 떠나 충청도 연산까지 이동했으나 이미 충주 전투의 패전소식을 듣고 다시 복귀했다.<sup>161)</sup> 이를 통해서 볼 때 도순변사 신립의 부대는 한성의 정예병을 중심으로 전라·충청·강원도의 지방군을 충주·집결지로 지정하여 동원함으로써 대규모의 부대를 편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신립의 부대는 양재도(良才道) 직로를 따라 남하했으며 이때도 역로망에 의한 통신체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성에서 출발한 이후 영남대로의 주요 구간인 양재도의 경로를 따라서 양재역, 낙생역, 용인, 양지, 죽산, 음죽, 충주의 경로를 거치며 남하한 것이다.<sup>162)</sup> 신립은 용인에서 올린 밀계에서 전황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sup>163)</sup> 이는 주요 도로망을 통해 경상도내의 전황이 소통되는 등 통신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도순변사 신립과 순변사 이일, 그리고 김여몰이 작전계획을 상의한 곳은 조령이 아닌 조령 북쪽의 지역이었다. 신립이 이일과 접촉한 시점은 이미

156)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57) 신경,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1, 임진년 4월 16일

158)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誌錄)』 서애선생기념사업회, pp. 51~52.

159)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7일

160) 신경,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1, 임진년 6월 17일

161)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30일

162) 정요근, “고려·조선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8), p. 214.

163)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6일

조령 정찰을 마치고 충주로 복귀하던 때였다. 도순변사 부대는 4월 26일 충주에 도착했으며<sup>164)</sup> 신립은 단월역에 도착한 이후 지휘부를 대동하고 조령으로 이동하여 지형을 살펴보았다.<sup>165)</sup> 신립은 조령에 부대를 배치하여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충주에서 조령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막힌 곳이 많아서 기병전술을 활용한 전투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리하여 지휘부를 이끌고 조령에서 다시 충주로 복귀했다. 이후 순변사 이일 일행이 조령을 넘어와서 복귀하던 신립과 만났으며 적정에 대해 보고했다.<sup>166)</sup> 신립이 일본군의 정세를 묻자,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sup>167)</sup>

신립이 왜적의 정세가 어떤가를 물으니, 이일이 대답하기를 (중략) 북쪽 오랑캐같이 쉽사리 제압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험준한 데를 점거하여 적의 길을 끊지 못하였으니 만약 넓은 들판에서 교전한다면 당해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후퇴하여 서울이나 지키십시오.<sup>168)</sup>

이일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주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점과 일본군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대해 설명했다. 중요한 대목은 이미 조령의 험준한 곳을 점거하여 일본군을 차단하지 못했으니 평지에서의 전투 역시 패배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다. 당시 조선군 지휘부가 논의를 한 곳은 조령이 아닌 조령 북쪽의 지역이었다. 신립은 최초 조령에 대한 지형정찰시 조령 일대의 매우 좁은 협로에서는 기마전술을 활용한 전투가 어려운 점을 들어 충주에서 방어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상주 전투에서 일본군 1번대의

164) 이궁익,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26일

165)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66)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신립이 주위의 모든 권고를 뒤로한 채 탄금대에서 결전을 주장했다고 했으나 이일과의 접촉 후에 조령방어를 포기하고 충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6일

167)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68)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6일

전술과 규모를 경험한 이일은 조령에서 일본군을 차단하지 못한 이상 평지에서의 전투 역시 일본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신립의 종사관 김여물은 조령 북쪽 좁은 지역의 험준한 요새에서 방어하면서 기병을 활용한 역습을 통해 방어하고자 했다. 신립의 지휘부는 이미 조령에서 철수하여 충주로 복귀하다가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이일을 만나 논의하고 있었다. 신립의 종사관 김여물은,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고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했으나 신립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sup>169)</sup>

일본군에 대한 수적 열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령 북쪽의 지역에서 산지를 활용하고 기병부대의 역습으로 방어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령 일대의 지형을 볼 때 조령에서 충주의 단월역까지 대부분 산지이며 좁은 길이 이어진다. 따라서 김여물의 건의는 조령이 아니더라도 신립 부대의 대부분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충주에서 가까운 험지를 선정하여 일본군이 단월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신립이 조령에서 철수하면서 기마전술을 활용한 야전을 염두한 것은 조선군의 편제상 대부분 기병이 주력이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신립이 조령 방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신립이 조령에 도착했을 때 조령 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은 조방장 번기의 부대가 계획대로 방어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조령 방어의 위급함을 알았지만 신립은 단월역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 8,000명의 기병부대를 조령으로 이동시켜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조령은 관방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성곽 등 방어시설이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만약 조령에 방어진을 편성한다면 조령에 이르는 좁은 길을 따라 긴 종대의 대열

169)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로 수천 명의 조선 기병이 도착한 이후 대부분은 말에서 내려 군마를 조령 후방에 두고 병력을 분배하여 배치하고 방어준비를 해야 했다. 조령이 관방의 요지라고 해도, 방어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전에 능한 대규모 일본군과의 공방전은 승리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조령이 돌파된다면 조선군의 철수로는 매우 좁은 상황에서, 수천의 군마와 병력은 공황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신립 부대는 조령을 점거하여 방어진을 펼치기 위한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본대는 4월 25일 상주에서 이일의 부대를 격파하고 26일 함창을 거쳐 문경을 점령하고 휴식과 정비를 취했다.<sup>170)</sup> 일본군 1번대의 본대가 문경을 점령한 4월 26일 신립은 충주에 도착한 이후 조령의 지형을 정찰하고 복귀하고 있었으며 이일은 조령을 넘어 충주로 향하다가 신립과 만났다. 조령에서 신립 부대의 대부분이 위치한 충주성까지의 거리는 일본군이 주둔한 문경과 조령 사이의 거리보다 2배 이상이었다. 게다가 충주 단월역부터 조령까지는 대부분 좁은 길이 종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신립이 일본군이 먼저 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본대를 이끌고 조령에 방어진을 펼치는 것은 시간, 거리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군의 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전투 전에 이미 신립 부대 내에 일본군의 접근에 대한 첩보가 보고된 상태였다. 4월 27일 이일과 변기, 충주목사 이종장이 척후 부대를 이끌고 단월역 남쪽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 1번대의 본대는 4월 27일 4시경 문경을 떠나 조령을 넘기 시작했으며 일본군 선봉대는 이미 조령을 넘어 충주로 접근 중이었다. 이일 부대가 일본군에 의해 차단되었지만<sup>171)</sup> 일본군이 조령을 넘어 북상중인 첩보는 신립의 본대에 보고되었다. 초저녁에 신립의 군관이

170)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6일

171) 이일과 충주목사 이종장 등 척후 부대는 탄금대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단월역 전방의 어느 지점에서 일본군에 의해 차단된 것이 분명한데 이일은 동쪽 산골짜기로부터 빠져 나와 도주했다는 점을 보아 조선군의 척후 부대는 단월역 남쪽에 위치했음이 분명하다.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류성룡, 『국역 징비록(懲愆錄)』 권1, 제4장 충주성의 패전과 수도의 위급

이미 일본군이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하자 신립이 직접 충주성 밖으로 말을 몰아 나갔다. 신립은 심야에 본진으로 복귀했으며 4월 28일 이른 아침 군관의 목을 베어 군율을 세우고, 조정에는 적병이 아직 상주를 넘지 않았다고 장계를 올렸다. 그런데 신립은 장계를 올리고 부대 전체를 이끌고 충주성을 벗어나 탄금대 지역으로 이동했다.<sup>172)</sup> 신립은 4월 27일 초저녁부터 심야까지 직접 정찰을 하였으며 이 시간에 탄금대를 결전의 장소로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에 대한 첩보를 보고하였으나 28일 이른 아침에 처형된 군관은 신립의 신망을 받던 가까운 친족이었으며 처형 후 신립이 즉시 '적이 아직 상주에 이르지 않았다'는 장계를 올렸던 점을 보아 일본군 접근에 대한 상황은 부대 전체에 인지되고 있었기에 신립이 전투를 앞두고 군기를 엄히 세우기 위해 군관을 처형하고 장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sup>173)</sup> 게다가 일련의 전장 군기를 세우는 조치를 하고 곧바로 부대 전체가 탄금대로 이동한 것을 보면 일본군 접근에 대한 상황은 부대 전체에 인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 부대는 포위진형으로 수차례 돌격했으나 일본군 양익의 화력집중과 근접전에 의해 패배한다. 일본군은 단월역에서 부대를 나누어 접근하였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병력 7,000명은 충주읍성으로 진격하고 소 요시토시의 병력 5,000명은 달천을 연하여 이동했으며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鎮信)의 병력 3,000여 명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다.<sup>174)</sup> 신립의 부대와 탄금대에서 전투를 벌인 일본군의 병력은 남한강 상류에서 도강한 마쓰라 시게노부의 병력을 제외한 12,000여 명으로 판단된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병력을 3개 부대로 편성하여 자신은

172) 4월 27일 군관이 일본군이 이미 조령을 넘어왔다는 첩보를 보고하자 신립이 충주성 밖으로 나갔다가 심야에 돌아왔다. 이는 신립이 직접 정찰을 다녀온 것이다.

173) 굳이 '적이 아직 상주에 이르지 않았다'고 장계를 올렸는지는 의문이다.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워낙 신속한데다 건국 이후 일본군이 조령을 넘어 온 것은 처음이었으며, 계속되는 경상도내의 조선군의 패전 소식에 신립의 부대 역시 일본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에 크게 동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74)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중앙에 위치하여 신립 부대를 포위공격 하고자 기동했다.<sup>175)</sup> 고니시 유키나가는 양익의 부대로 하여금 약하게 보이도록 기만했다.<sup>176)</sup> 신립은 일본군의 중앙부대에 대해 3번에 걸쳐 기병부대를 운용하여 일본군 일부 부대를 단월역으로 퇴각시키기도 했으나<sup>177)</sup> 일본군 양익부대의 조총사격과 단병전술에 의해 결국 패배했으며 조선군의 사상자는 8,000여명이었다.<sup>178)</sup> 프로이스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 기록된 대로 탄금대 전투는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었으며, 조선군 무관, 군관 등 상위 신분의 기병들은 전투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sup>179)</sup>

도순변사 신립은 대규모 부대를 편성하려 했으나 충주 전투에서 일본군 1번대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충주에서 한성까지 기동로가 개방되었다. 길이 넓고 관방상의 요지가 없었던 경기도 지역에서 일본군 정예 병력을 상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성 함락의 위협을 느낀 선조는 결국 서행(西行)을 결심한다. 일본군 1번대는 4월 28일 탄금대 전투에서 승리하고 저녁에 충주로 복귀했으며 죽령을 넘어 북상하려고 했던 일본군 2번대가 조령을 넘어 4월 29일 충주에 입성했다.<sup>180)</sup>

### (3) 좌·우방어사 부대의 활동

경상도에 파견된 중앙의 경장은 순변사, 좌방어사, 우방어사, 조령·죽령 조방장 등이었다. 먼저 경상도 지방군이 접적지역에서 일본군과 접전하는 동안 경장 부대가 부대를 편성하고 투입되어 상황을 정리하는 개념이었다. 순변사 이일의 임무는 경상도내에서 일본군을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좌·우

17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p. 50.

176) 루이스 프로이스, 『임진난의 기록』 정성화·양윤선 역(서울: 살림, 2008), p. 66.

17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0.

178) 루이스 프로이스, 위의 책, pp. 66~67.

179) 충주 전투에서 조선의 상급 병사 즉, 무관 및 군관들은 매우 용감하고 대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루이스 프로이스, 위의 책, pp. 67~68.

180) 기타지마 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김유성·이민웅 역(서울: 경인문화사, 2008), p. 51.

방어사의 임무는 각각 경상 좌·우병사를 지원하거나 초월 작전하는 것이다. 최초 경장파견시 좌방어사로 임명된 성응길<sup>181)</sup>은 죽령을 통과하여 경상좌도 지역에서 부대편성을 하며 남하 중이었다.

경상좌도에서 방어사 부대의 군사동원과 부대편성은 당시 도로 및 통신 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경상도의 제승방략에 의하면 좌방어사 부대로 편성될 제진이 지정되어 있었다.<sup>182)</sup> 좌방어사가 남진하면서 신임 경주부윤 변응성과 풍기·예천군수가 동행하는 것<sup>183)</sup>과 하양이 원래 방어사의 소속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풍기, 하양, 경주는 경상좌로<sup>184)</sup> 및 봉수로와 일치한다. 즉,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경상 좌방어사의 부대가 편성되는 것이다. 최초 경상도에서 전쟁 발발시 정보전파에 의해 도로 및 통신망을 주축으로 진관별 동원이 실시된다. 초동조치를 위한 지방군 운용을 위해 사전에 병사의 소속으로 지정된 진관은 병영으로 동원되어 병사가 접적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이때 중앙에서 파견된 방어사는 경상도의 좌로를 따라 이동하며 사전에 방어사 소속으로 지정된 좌로 인근의 진관 병력으로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신속한 복상에 의해 방어사 부대가 최초 접적지역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일본군은 경상도를 돌파하고 신속히 복상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81) 『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4일 계묘: 박동량, 『기재사초』 상, 임진일록1, 4월 17일  
 182) 분군법에 의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부대편성에 있어 평시의 방략에 의해 부대별로 소속될 진관이 지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중앙군은 지휘부와 도성의 일부 병력으로 최초 편성되어 해당 도내로 이동하지만 중앙군의 주축병력은 해당 도내의 지방군으로 편성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 좌병영 소속의 경상좌도 각 진관별 병력이 좌병영으로 동원되었다. 이때 이각은 대구진관 예하의 하양진 대장(代將)에게 말하기를 “하양은 본래 방어사의 소속이었으므로”라고 말하여 하양진의 병력을 다시 복귀시켜 방어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하양의 병력은 다시 복상하고 있었으나 좌병영으로 가고 있던 용궁현감 우복룡이 하양의 병력 500명을 도망병으로 판단하여 전부 죽인 이후 이를 좌방어사 성응길에게 보고했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1일, 이공익,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말 4월 19일  
 183)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5월 3일  
 184) 좌로는 울산의 염포에서 한양에 이르는 교통로인데, 경주, 영천, 의흥, 의성, 안동, 풍기, 죽령, 단양, 충풍, 충주, 여주, 양근 등을 경유하는 길이다. 최영준, 『영남대로』(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p. 136.

가 지휘하는 2번대의 일부 부대는 이미 4월 21일 경주를 함락시키고<sup>185)</sup>, 주력 부대는 4월 22일 좌병영성 전투에서 경상도 지방군의 주력을 격파하며 영남대로의 좌로를 따라 북상했다. 4월 23일에는 영천과 신령을 함락시켰으며 일부 소규모 부대는 안동방면으로 진출했다.<sup>186)</sup> 이날 신령이 함락될 때 좌방어사 부대는 의흥에 주둔하고 있었다.

영천에 머물러 있던 적은 신령으로 진격하여 함락시키고 (중략) 좌방어 성을 길과 조방장 박종남은 의흥에 머물러 있으면서 움츠리고 물러난 채 나아가지 못했다.<sup>187)</sup>

좌방어사 부대는 일본군 2번대의 신속한 북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시하고 있었다. 일본군 2번대는 2개 부대로 분진하여 경주와 좌병영을 각각 격파한 후 경상좌로를 통해 북상 중이었다. 영천, 신령 점령 이후에도 2개 부대로 분진합격하며 이동했다. 의흥의 좌방어사 부대는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에 대한 첩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열세한 전세를 판단한 결과 일본군 2번대와 교전을 치루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경과에서 좌방어사 부대는 계속하여 일본군 2번대와 1개 고을 간격의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진술상 장거리 정찰부대 운용을 고려할 때 2번대 역시 의흥의 좌방어사 부대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좌방어사 부대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면 경상좌도를 방어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지만<sup>188)</sup> 오히려 좌방어사 부대의 활동은 일본군 2번대가 이동로를 변경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번대의 최초 계획은 영남대로의 좌로를 통해 죽령을 넘어 북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월 23일 좌방어사 부대는 의흥에 주둔하고, 2번대는 의흥 남쪽 40리(약

185)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p. 256~257.

186)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2~23일

187)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3일

188) 『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병진

18km) 거리의 신령을 점령하여 대치하였다. 다음날 4월 24일 2번대는 북상하여 의흥을 점령하자 좌방어사 부대는 의성에 주둔한 채 대치하였다. 일본군 2번대가 좌로의 경로인 의흥, 의성을 경유하지 않고, 의흥, 군위의 경로로 북상하게 된 것을 보면 의흥, 의성에서 방어하던 좌방어사의 부대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좌방어사 부대는 직접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일본군 2번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의 경로변경에는 좌방어사 부대의 활동과 이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 2번대의 활동을 보면 주로 2개 부대가 인근지역에서 분진합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각각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며 북상했기 때문이다.<sup>189)</sup> 고니시 유키나가와 전공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가토 기요마사는 신속한 북상을 원했다.<sup>190)</sup> 4월 24일 일본군 1번대가 선산을 점령하고 2번대가 의성을 점령했을 때까지는<sup>191)</sup> 북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4월 25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상주전투에서 이일의 부대를 격파하고 문경으로 신속히 북상하자 일본군 2번대는 뒤처지게 되었다.<sup>192)</sup> 가토 기요마사는 최초 계획한 경상좌로를 통한 북상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고니시 유키나가의 신속한 북상소식에 의해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토 기요

189) 최초 전투편성시 2번대의 지휘관은 가토 기요마사지만 병력은 가토 기요마사의 병력 10,000여 명과 나베시마 나오시게의 병력 12,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각 영주가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동일한 번대 소속일지라도 구체적인 부대운용은 해당 장수에 의해 독립적으로 실시되었다.

190) 프로이스의 『일본사(Historia de Japam)』에 의하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의 경쟁의식은 상당히 첨예했음을 알 수 있다. 신립 부대를 격파한 이후 가진 충주에서의 작전회의에서 고니시 측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계속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후속하며 '어부지리'의 이득을 취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가토 기요마사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성에 먼저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자신의 부대가 최초로 한성에 입성했다며 허위로 보고했다. 히데요시 예하의 최고무장으로 평가받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무한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91)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4일

192)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4월 25일 상주전투를 치루고, 26일 함창·문경을 점령한 후 27일에는 조령을 넘고 있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이날 예천의 다인현에 도착했으나 일본군 1번대와 약 110~140리의 거리가 이격되었던 것이다.

마사는 군위, 비안을 거쳐 4월 27일에야 예천의 다인현에 주둔했다.<sup>193)</sup>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성에서 방어하던 좌방어사 부대는 안동의 풍산으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일본군 2번대를 측면에서 압박했다.<sup>194)</sup> 이는 아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다.

경상좌도의 조방장 박종남이 의성으로부터 사잇길로 해서 안동의 풍산으로 후퇴하고는 창고를 강그리 불사르고 가버리다. 왜적은 다인에서 하풍진을 건너 함용 땅으로 전진하여 당교에다 진을 치다.<sup>195)</sup>

좌방어사 부대는 일본군 2번대를 견제하며 경상좌로를 통해 북상하는 것을 저지했다. 경상좌로를 따라 죽령을 넘기 위해서는 의흥, 의성, 안동을 거쳐 북상해야 했으나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의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군위, 비안을 거쳐 예천의 다인에 도착하는데 3일이나 소요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좌방어사 부대는 의성에서 상당기간 일본군의 북상을 견제했으며 이후 일본군의 선봉대가 군위, 비안을 거쳐 북상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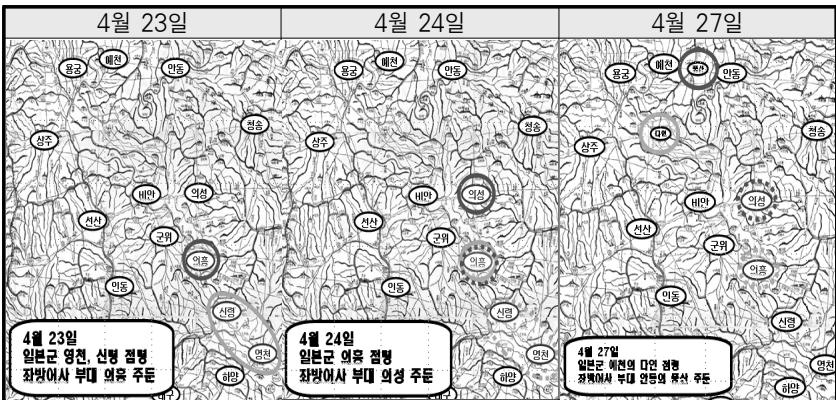


그림 4. 좌방어사 부대와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이동과 간격

193)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7일  
 194) 조방장 박종남이 거부작전을 실시하며 주둔한 안동의 풍산은 일본군 2번대가 주둔했던 예천의 다인현에서 좌로인 안동으로 진입시 최단거리의 중간지점이었다. 즉, 좌방어사 부대는 도주한 것이 아니라 2번대와 거리를 유지하며 기동방어를 실시한 것이다.  
 195)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선조25년 4월 28일

사잇길을 따라서 안동의 풍산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다인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다시 안동으로 북상하기 위한 길목이 바로 좌방어사 부대가 이동하여 주둔한 풍산이었다. 즉, 좌방어사 부대는 예천의 다인현에 주둔했던 일본군 부대가 안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한 것이었다.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견제하던 좌방어사 부대는 일본군의 주력이 좌로를 경유하지 않고 중로로 북상하자 역시 죽령을 통해 북상했다. 죽령을 지키던 조방장 유극량<sup>196)</sup>과 좌방어사 부대는 이후 죽령을 넘어<sup>197)</sup> 각개 이동하여 임진강 전선에서 도원수 김명원의 부대와 합류한다.<sup>198)</sup> 경상도 초기 전역에서 일본군의 신속한 북상과 선조의 파천에 의해 경상도 지역의 장수들은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좌방어사 성응길<sup>199)</sup>과 예하 장수들 역시 일본군을 방어하지 않고 근왕을 핑계대로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200)</sup> 그러나 좌방어사 부대의 이동경로와 활동에 대한 군사적 고찰을 통해 분명히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와 접적을 유지하며 방어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좌방어사 부대가 최초 접적지역으로 진입하여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경상좌도 지방군과 연계하여 작전을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경상좌로를 경유하여 북상하고자 했던 가토 기요마사의 북상경로를 변경시켰다. 이로 인해 이후 안동지방에서의 군사력 기반은 유지될 수 있었다.

우방어사 조경 역시 한성에서 소집한 군관을 대동하고, 조령을 통과하여 경상우도로 남하했다. 이때 순변사 이일보다 반나절 거리를 두고 앞서 진

196) 유극량은 죽령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일본군 1번대가 충주를 함락시킨 이후 직산으로 이동하여 충청감사 겸 순찰사 윤선각의 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양자간 소식이 늦어 유극량은 부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임진강 전선에 합류한다. 윤국형, 『문소만록(聞韶漫錄)』 판서 윤국형 저

197) 『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병진

198) 죽령을 지키던 유극량은 병력을 이끌고 근왕하고자 북상하여 임진강 전선에 투입되었다. 『선조수정실록』 25년 5월: 이공익,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 권15, 선조조고사본 말 5월 4일

199) 성응길은 이후 경기수사로 임명되었다가 병사한다. 정탁, 『약포 용사일기(龍蛇日記)』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p. 50.

200) 『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병진

입했다.<sup>201)</sup> 임무는 경상우도의 지방군을 지원하거나 협동작전을 수행하며 경상우도내에서 일본군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중로를 따라 조령을 통과하여 경상도에 들어온 뒤 우로에 진입하여 경상우도의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고자 했다.<sup>202)</sup> 조방장 양사준이 선두부대를 지휘하고 우방어사 조경은 본대를 이끌고 남하했다. 양사준은 4월 22일 저녁에 상주에 도착했으며, 23일에는 우방어사 조경과 함께 상주를 경유하여 남하했다.<sup>203)</sup>

우방어사 부대의 병력동원은 계승방략에 의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상주에서 남하하여 영남대로의 우로상의 금산(金山)에 도달했지만 성주가 일본군 3번대에 의해 함락되어 병력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금산의 병력 외에는 특별히 동원할 진관병력이 없었다. 이는 거창으로 파견한 선봉대가 기병 수십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204)</sup>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당시 거창에 머무르며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미 중로와 좌로에서 일본군을 차단하지 못하자 우로와 추풍령으로 이동하는 일본군 3번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수는 추풍령 방어를 중요하게 여겼다.<sup>205)</sup> 김수는 병력 400여 명을 우방어사 조경에게 보내기도 했다.<sup>206)</sup> 게다가 전라방어사 곽영이 병력을 이끌고 운봉을 거쳐 경상도로 진입하고 있었다.<sup>207)</sup> 이는 김수의 요청도 있었지만 경상우도와 추풍령이 보존되어야 전라도가

201) 순변사 이일과 우방어사 조경은 조령을 통과하여 경상도내로 진입했는데, 상주에 도착한 날짜를 비교하면 조경의 예하 장수인 조방장 양사준이 4월 22일에 도착하고, 조경이 4월 23일에 식사만 하고 남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일은 우방어사 부대가 남하한 후 4월 23일 저녁에 도착했음을 고려할 때 두 부대의 거리는 약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 볼 수 있다.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 25년 6월 22~23일

202) 영남대로의 중로는 조령을 이용하며 우로는 추풍령을 이용한다. 최초 경장파견시 우로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우방어사 조경은 조령을 통과하며 남하했다. 하지만 상주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만 하고 곧바로 남하했으며 작전지역은 경상우도의 지례, 거창, 금산, 추풍령이었다. 즉, 경상우도의 서로지역을 담당했다.

203) 조정,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 임진왜란일기1, 선조 25년 6월 22~23일

204) 채휴징, 『국역 매헌실기(梅軒實記)』 권1, 선조25년 4월

205)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22일

206)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5월 19일

207)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7일

안전하기 때문에 전라감사 겸 순찰사 이광의 판단에 의해 전라방어사 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sup>208)</sup>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가 지휘하는 일본군 3번대는 김해전투 이후 창원, 영산, 창녕으로 북상하며 우로를 따라 한성으로 진입하고자 했다. 최초 김해에 상륙할 때 일본군 3번대의 병력규모는 구로다 나가마사의 5,000여 명과 오토모 요시무네의 6,000여 명으로 편성된 총 11,000여 명이었다.<sup>209)</sup> 창녕에서는 2개 부대로 분진하여 가야산을 기점으로 양측방으로 기동한 후 금산에서 합진하여 추풍령을 넘고자 했다.<sup>210)</sup> 따라서 경상우도 지역에서 방어사 부대는 2개 축선에 대한 전투가 강요되었다. 4월 21일 일본군 3번대의 주력은 우로상의 영산, 창녕, 현풍을 약탈하며 북진했으며<sup>211)</sup> 4월 22일 무계에서 낙동강을 도하였다.<sup>212)</sup> 4월 23일 성주를 점령하고 인근지역에 대한 약탈과 수색작전을 실시했다.<sup>213)</sup> 이에 반해 창녕에서 초계, 합천, 거창 경로로 서진한 일본군 3번대의 예하 부대는 선봉대가 거창의 신창에 주둔중이었다. 이 부대와 조경의 선봉대가 4월 23일 교전을 벌이게 된다.<sup>214)</sup>

208) 당시 하삼도의 감사는 순찰사를 겸하고 있어 관할하는 도내의 방어사와 병마절도사 부대를 절제할 수 있었다. 또한 군사활동의 범위가 해당 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시 초기 대규모 일본군이 계속 북상하고, 급변상황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해당 도를 넘어선 군사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즉, 조정에서 인접한 도의 주장들끼리 의논하여 임기응변할 수 있는 서장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전라방어사 광영이 전라도를 벗어나 경상우도를 지원한 것은 최초 김수의 요청에 의해 결국 이광의 결심으로 파견된 것이다. 이순신, 『임진장초(壬辰狀草)』 구원하러 출전하는 일을 아뢰는 계본1

209) 이형석, 『임진전란사』 하(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p. 1714.

21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p. 47.

211)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1일

212) 이탁영, 『역주 정만록(征蠻錄)』 임진변생후일록, 임진년 4월 22일

213) 성주가 함락된 이후에도 성주목사 이덕열은 도주하지 않고 계속 활동했다. 경상감사 겸 순찰사 김수의 영리이자 『정만록』의 저자인 이탁영이 전라감사 겸 순찰사 이광에게 보낸 통지에 의하면 성주를 점령한 일본군 약 200여명이 성주의 여러 마을을 수색중이었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선조25년 4월 23~28일, 우방어사의 선봉대가 거창에서 최초 전투를 벌인 날 일본군 3번대의 주력은 성주를 함락시켰다. 즉, 우방어사 부대는 지례에 주둔하여 3번대의 2개 부대에 양익포위된 형세가 된 것이다.

214) 『조정선생문집(趙靖先生文集)』에 의하면 방어사 조경과 조방장 양사준은 4월 23일 상주를 경유하여 식사를 하고 신속히 남하했다. 『매헌실기(梅軒實記)』에 의하면 방어사 주관의 작전회의 이후 정기룡이 이끄는 소규모 기병부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대가 역

우방어사 부대의 최초 전투에서는 기병부대를 활용한 전술이 주효했다. 우방어사 조경은 예하 장수들과 일본군의 조총, 보병전술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봉부대를 소규모 기병으로 조직하고 돌격전을 벌여 일본군의 대형을 와해시킨 후 보·기 협동공격으로 전투를 마무리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지례에 도착한 이후 군관 정기룡을 선봉장으로 삼아 기병부대를 파견했는데 이 부대가 지례현의 우지현을 넘어 남하할 때 일본군 500여 명이 이미 거창의 신창에 있었다. 수십 명으로 편성된 정기룡의 선봉부대는 일본군 약 100여 명을 사살하며 최초 교전에서 승리한 후 지례현으로 복귀했다.<sup>215)</sup>

일본군 3번대가 3개 방면에서 압박하자 우방어사 부대는 금산으로 이동하여 추풍령을 지키고자 했다. 일본군 3번대의 2개 부대가 거창과 성주에서 측면을 압박하고, 일부가 후방의 금산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계속해서 거창 방면의 일본군과 소규모 교전을 치르며 지례에 주둔하던 우방어사 부대는 금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sup>216)</sup> 결국 우지현을 경계로 대치중이던 우방어사 부대는 거창의 일본군이 지례로 진입하자 금산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다.<sup>217)</sup> 이때 전라도의 경장부대가 경상도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전라방어사 광영과 조방장 이지시가 4월 27일 5,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원, 운봉을 경유하여 함양에 도착했다.<sup>218)</sup> 성주에 주둔한 일

---

시 거창의 신창에 주둔하던 일본군 제3번대와의 전투 당일 방어사 부대의 본진은 지례현에 있었다고 한다.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는 이 전투일을 4월 23일로 설명한다. 정기룡 부대의 전투날짜가 4월 23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가정이 가능하다. 첫째, 작전회의는 적어도 23일 이전에 실시되어 선봉대가 출발한 것이다. 둘째, 우방어사 본대가 4월 23일 상주에서 이른 아침을 먹고 곧바로 남하하여 지례로 진입한 것이다.

215) 우방어사의 선봉대는 이 전투에서 일본군과 최초로 접전했다. 병력의 규모측면에서도 정기룡 부대는 기병 수십명이었으며 일본군은 병종미상 500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군이 열세했다. 조선군 선봉대는 전투 초기에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정기룡이 선봉으로 돌격하며 기병전술이 효과를 보이자 일제히 공격하여 일본군을 와해시키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 채휴징, 『국역 매현실기(梅軒實記)』 권1, 선조25년 4월

216) 채휴징, 『국역 매현실기(梅軒實記)』 권1, 선조25년 4월

217) 채휴징, 『국역 매현실기(梅軒實記)』 권1, 선조25년 4월

218) 조정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7일

본군 3번대의 예하부대는 4월 28일 개령과 금산을 잇달아 함락시켰다. 이때 방어사 부대가 당일 추풍령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한다. 이후 추풍령을 최초로 넘어간 3번대의 좌중대는 황간, 청산을 이동하며 북상했다.<sup>219)</sup>

금산에서 추풍령을 차단하여 일본군 3번대의 북상을 차단하고자 했던 우방어사 부대는 전라방어사 부대가 전라도 1차 근왕의 전력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전주로 철수한 이후 5월 3일 금산전투에서 패배한다.<sup>220)</sup> 추풍령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군 3번대의 일부부대가 추풍령을 통과했지만 전라방어사 광영과 합세하여 소규모 소탕전을 벌였다. 광영은 4월 27일에 함양을 경유하여 지례에서 2일을 주둔했으나 이후 김수의 독촉에 의해 4월 30일 금산에 진입했다.<sup>221)</sup> 우방어사 조경은 전라방어사 광영과 합세하여 금산의 금천역에서 일본군 35명을 소탕했다. 이후 전라감사 겸 순찰사 이광이 1차 근왕군을 이끌고 북상하자 방어사 광영은 추풍령을 통해 전라도로 돌아갔다.<sup>222)</sup> 5월 3일 일본군 3번대의 주력부대가 추풍령을 넘어 북진하고자 하면서 금산전투가 벌어졌다.<sup>223)</sup> 이 전투에서 일본군 3번대는 추풍령 이남의 전 병력을 동원했으며, 양측의 선봉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전투가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군의 일부 부대가 우회하여 방어사의 본대를

219) 우방어사 부대가 4월 28일 추풍령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때 최초로 추풍령을 넘어간 제3번대의 부대는 많은 병력이 아니었으나 거창방면의 부대인지 성주방면의 부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전라방어사 부대가 남원-운봉-함양을 거쳐 지례-금산으로 이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4월 28일 전투 이후 추풍령을 넘어간 일본군은 거창-지례로 북상한 3번대 부대로 판단된다. 정경운, 『역주 고대일록(孤臺日錄)』 권1, 임진 4월 23일 임자;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28일

220) 『선조실록』 25년 6월 28일 병진

221)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5월 19일

222) 선조가 5월 20일 평양에서 전라방어사 광영이 금산에서 승리한 내용의 장계를 받았다. 『선조실록』 25년 5월 20일 기묘, 전라방어사 부대가 금산에 도착하자 우방어사 조경과 합세하여 벌인 전투에서 일본군 35명의 수급을 베었으며 관군의 사상자는 50여 명이었다. 이후 광영이 어느 경로를 통해 전라도로 복귀했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추풍령을 통해 전라도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라도 감사 겸 순찰사 이광의 1차 근왕에 전라방어사 부대가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라방어사 광영은 금산에서 추풍령을 통해 전라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남, 『난중잡록(亂中雜錄)』 권1, 임진년 4월 30일, 5월 4일

223) 금산에서는 크게 3번의 전투가 있었다. 추풍령 전투, 전라·경상방어사 부대가 합세한 금천역 전투, 그리고 3번대의 주력이 추풍령을 건너간 금산 전투로 분류할 수 있겠다.

타격했다. 조경은 거의 죽을 뻔 했으나 선봉에서 활약하던 군관 정기룡이 가까스로 구해내고 포위망을 빠져나왔다.<sup>224)</sup> 결국 5월 3일 금산전투에서 우방어사 부대는 패배했으며 일본군 3번대의 주력부대는 추풍령을 넘어 한성으로 북진했다.

금산 일대의 전투는 단 1회의 결전으로 치러진 것이 아닌 수차례의 교전과 전라방어사 부대까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군 3번대의 분진합격에 의한 압박은 우방어사 부대를 지례에서 금산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3번대의 대규모 병력이 집중된 추풍령 전투와 마지막 금산전투에서는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방어사 부대는 평시 분군법에 의한 병력동원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지형과 일본군 전술을 고려한 전술로 소규모 교전에서 계속 승리했다. 조정과 경상도·전라도 순찰사간의 논의와 중앙에서 군사력 운용의 제한을 낮추는 절차를 거쳐 임진왜란 발발 2주 내에 전라방어사 부대가 경상우도로 지원되었음을 분석했다. 전라방어사 부대는 우방어사 부대와 함께 금산지역에서 탐색전을 수행하다가 전라도 근왕군 동원과 북상 이후 전주 방비를 위해 추풍령을 통해 전라도로 복귀했음도 알 수 있었다. 이후 우방어사 부대의 주력군은 삼도 근왕군이 동원되어 북상할 때 겸순찰사 김수를 따라 용인까지 북상한다.

#### 4. 맺 음 말

이상에서 임진왜란 초기 전쟁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조선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선군의 동원과 이동과정, 일본군과의 전투를 분석함에 있어 16세기를 거치며 정비된 제승방략에 의한 군사력 운용을 적극적으로 대입하였다. 그리고 기존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경상도 좌·우병마절도사와 지방군의 전투, 중앙에서 파견

224) 채휴징, 『국역 매현실기(梅軒實記)』 권1, 임진년 5월

된 경상도 좌·우방어사와 경장 부대의 전투에서 조선군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필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군사적 의미를 갖는다.

조선은 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하였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실제 군사체제가 작동되었으나 전쟁의 추이는 제승방략에 의한 것과는 양상이 달랐다. 개전 초기 신속하게 부산포 일대로 투입되었던 일본군 1번대는 경상도 지방군의 초기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와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연일 일본군 각 번대가 후속하여 투입되면서 일본군은 이미 경상도 연해의 초기 방어선을 돌파하여 신속하게 북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투입된 경장 부대는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거한 집결지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부족한 병력과 물자를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쟁사를 통해 16세기 조선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의 통신체계와 연계되어 제승방략에 의한 군사체제가 작동되었다. 최초 상황 발생시 인근의 봉수 및 연대의 후방기능을 시작으로 전쟁 발발의 급보는 내륙의 봉수망과 역로망, 관보 등을 통해 내륙 및 중앙, 각 제진 및 주요 지방군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각 제진은 해당 고을의 군역 대상자, 군마, 군량과 물자를 동원하였으며 제승방략에 의해 병마와 군량을 구분하고 제진별 이동을 준비했다. 각 통신체계가 전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상호 중첩되어 있어 신속한 정보전파를 가능하였으며 군사동원의 신속성을 보장했다.

지방군 지휘관이 초기 대응을 지휘했으며 감사는 상황을 판단하여 분군령을 하달했다. 적변을 맞은 연변지역은 초기 대응에 있어 신속한 동원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해당 거진은 물론 인접한 거진의 계획된 제진의 군사는 즉시 제승방략에 의한 집결지로 이동했다. 이와 동시에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지방군 지휘관이 현장에 위치하여 동원된 군사를 기반으로 초기 대응을 지휘했다. 감사의 분군령은 적 부대가 수군의 담당지역을 돌파하여 연변의 고을을 함락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력을 운용하는 경우에 하달되었다. 해당 도(道)의 중·북부 고을에서는 각 제진별 군사 동원과 함

계 경장 파견에 대비한 병마, 군량을 준비하고 분군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초기 동원된 거진의 지방군에 의해 상황을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의 분군령(分軍令)이 하달되어 비로소 제진의 영장(領長)이 즉시 제진의 정예병을 인솔하여 제승방략의 분군법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집결지로 이동했다. 제진의 수성장은 제진에 잔류하여 해당 고을의 방어와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했다.

경장은 중앙의 정예병을 대동하고 해당 도(道)로 이동하며 부대를 편성했다. 경장은 부대편성의 기간(基幹)이 되는 참모, 군관 및 정예 군사를 이끌고 파견 지방으로 신속히 남하했다. 역로망을 경유하며 역로의 역마와 제진별 운법(運法)에 의해 대기 중인 군사, 군마, 군량, 전투물자를 취하며 이동했다. 경장 부대는 중앙군의 핵심인 금군(禁軍)의 일부와 한성에 있는 무장으로 편성된 중앙군의 정예 병력을 대동했기 때문에 최초 한성에서 출발할 때는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이동하면서 지방군 병력과 물자를 흡수하여 점차 그 규모가 증강되었다.

도내로 경장이 파견되면서 도내의 경장과 지방군 지휘관의 지휘체계와 임무가 설정되었다. 하삼도 감사는 순찰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사 이하의 경장은 해당 도(道)에 도착하면 겸순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이외에 순찰사와 같은 품계인 순변사가 파견되었으나 그 임무와 기능에 있어 차이점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수군의 단독작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적변이 발생하여 육전이 발발할 경우 병·수사가 제1선에서 지방군을 지휘하여 초동 조치했다. 겸순찰사는 제2선에 위치하여 초기 대응을 총지휘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분군령을 하달하여 제승방략에 의해 계획된 도(道)의 중·북부 거진, 제진의 군사를 집결지로 이동시켰다. 중앙에서 파견된 방어사는 역로망을 통해 이동하며 대기 중인 병력과 군마, 물자를 취하며 최종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도내의 제진의 병력을 흡수하여 제2선에 위치했고, 감사 겸 순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제3선에는 도내에 진입한 순변사가 제승방략에 의해 지정된 제진의 지방군을 주축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결정적인 시점에 투입하

는 도내의 예비대를 지휘했다. 적변이 발생한 도내의 군사력 운용의 모습은 전방은 순찰사가 지휘하여 초동조치하고, 후방은 순변사가 예비대를 편성하여 운용하는 형세를 갖추었다.

연구 결과 초기 전투사의 새로운 부분을 제시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이전 경상좌도 경주 이북의 지형적 특성과 동래 인근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 경상좌수영 예하 수군 진포의 위치를 조정하여 좌수영, 부산포, 다대포로 밀집 배치하였다. 이는 16세기를 거치며 조선 수군의 전술이 변화되었으며, 일본과의 대규모 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쟁 발발시 신속하게 분군법에 의해 함대를 편성하고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일본군이 소산역을 돌파하고 북상하자 작원의 관방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경상도 겸순찰사 김수의 조치에 의해 경상우도 소속의 진주와 함양의 군사들이 경상좌도의 작원 전투에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겸순찰사는 병마절도사가 초기대응하는 군사들의 후방에서 전선을 지휘하였다.

경상도 좌·우방어사의 구체적인 활동과 이동경로, 일본군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좌·우방어사는 역로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역마, 인근 제진의 병마, 군량, 전투물자 등을 취하며 부대를 편성했으며 최종 집결지로 이동하여 도내의 순찰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경상도 지방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북상하자 경상도 제승방략에 의해 계획된 군사동원과 이동을 완료하지 못한채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경상우방어사 조경의 부대는 금산과 추풍령 일대에서 전라도 경장 부대와 연계하여 수차례 전투를 치르며 활동하였다. 또한 경상좌방어사 성응길의 부대는 영남대로의 좌로를 따라 이동하던 일본군 2번대의 북상을 지연시켰으며 결국 2번대가 경로를 바꾸어 중로를 따라 조령을 넘어가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는 후에 경상좌도 지역에서의 조선군 군사력 재건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임진왜란 초기의 전쟁사를 군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

구 시각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본고는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 기존 연구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와 더불어 초전 조선군의 패전원인 분석 측면은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작은 첫걸음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초기 다른 지역의 전투를 군사적 시각에서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면 보다 새로운 논의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무기력하게 연패만 하며 붕괴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과정에서 조정의 전쟁지도와 더불어 제승방략에 의한 관군의 활동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하고 평양성에 진출한 시점 인근부터 계속되는 수군 전투의 승리와 각 지역에서의 조선 관군의 활동과 성과를 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임진왜란의 전황극복은 조선 수군의 우수성, 명장들의 개인적 능력, 의병의 활동, 명군(明軍)의 지원 등 개별 요인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될 것이다.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기습에 의한 전쟁 초기의 무기력한 패배원인으로 지적되었던 16세기 조선의 군비 해이와 군사제도의 문란이라는 기존 인식은 이제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10. 6. 11, 심사수정일 : 2010. 9. 10,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임진왜란(壬辰倭亂), 군사체제(軍事體制), 중앙군(中央軍), 지방군(地方軍)  
조방장(助防將), 방어사(防禦使), 분군법(分軍法), 봉수(烽燧), 군사동원(軍事動員), 제승방략(制勝方略), 진관체제(鎭管體制)

<ABSTRACT>

A Study on Organization and System of the  
*Joseon* Army in the Battles of *Gyeongsangdo* Area  
during Early Imjin War

Lee, Ho-joon

Many studies on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ave been preceded to the point of forming an greatest part of Korean military history. But the viewpoint on the governmental preparation for war, war guide and operation of military power was very negative. The operation process of *Joseon's* military system should be objectively analyzed by connecting it to the entire progress of Imjin War based on recognition about it in the 16th century. But It is difficult to avoid evaluation that it was generally weak because it focused on rapid occupation of Hanseong by Japan and aftereffect of the war. It causes the problem that you distort and look at *Joseon's* military system itself in the 16th century as well as Imjin War.

This study tries to recover the existing viewpoint that *Joseon* could not help losing the war because its military system was disorder and lacked preparation for war by reviewing the war history of early Imjin War critically. Consideration on it will present the objective viewpoint that you can specifically know the *Joseon's* military system because the war showed the process that the military system operated. It tries to review the existing war studies that depend on description historical materials more critically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Joseon's* way to execute wars was based on military tradition that the

reins were divided and delegated when crisis occurred. *Joseon* operated local military power to protect the country against external parts. And it divided the reins to control local military power and to prevent rebellions which are the dynasty's biggest threat. The local militaries performed actions in the beginning stage when Joseon executed foreign wars. But if situation was not settled in spite of it, corporals to whom a king delegated the military power were dispatched and led the central militaries consisted of a crack to local areas and finished all the situations. The Local militaries have to arrange the procedures that they got the approvals from the central military when they tried to operate the other local militaries in other districts(道) because they could not operate their duties in other places except their applicable districts(道) without approvals of it.

The result that the function of the dispatched corporals was developed and reflected changed the method to divide and distribute the militaries by *Jingwan* System(鎭管體制) to the one by *Jeseungbangryak* System(制勝方略). The function of dispatched corporals ranging from *Jobangjang*(助防將) to *Dojehalsa*(都體察使) was gradually developed in 16th century. The dispatched corporals moved to the applicable districts(道) with the armed cracks who are in the part of the Central Armies(中央軍) in *Hanseong*. In this process, they passed post road networks and moved taking soldiers, horses, foods and fighting materials which are waiting for them in each assembly area by *Jejinbyeol* wunbeop(a kind of moving method, 運法). The method to divide and distribute the militaries of each district(分軍法) was reflected to *Jeseungbangryak* by district(道) based on the dispatched corporals and changeable national defense situation.

As there was Imjin War, *Joseon* operated military power through the built military system. Military mobilization was began with rapid information spread by each communication system including signal fire network and post road network. Soldiers took action against the enemy in the beginning stage operating the soldiers mobilized from each troop by *Jeseungbangryak* (制勝方略). Auditors and patrol parties judged situation and gave orders to each district(道). Soldiers in each troop in middle and north parts of *Gyeongsangdo*(慶尙道) moved to the designated assembly area. The partial

troops were formed to the local troops that was taking action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e partial troops were done to the corporals' troops. The corporals were consequently dispatched to the places ranging from *Jobangjang* to *Dojechalsa* by the first action of the government.

Key Words : Imjin War(壬辰倭亂), Military System(軍事體制), the Central Armies (中央軍), Local Military System(地方軍), *Jobangjang*(助防將), Pangosa(防繫使), The method to divide and distribute the militaries of each district(分軍法), Signal fire(烽燧), Military Mobilization(軍事動員), *Jeseung-bangnyak*(制勝方略), *Jingwan* System(鎭管體制),

